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무료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가 진전됐으며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살고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별다른 성숙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올해 경제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노사간 공동생존을 위한 진정한 공생관계로 거듭나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겠다. 부처님이 설하신 노사관계는 당시 시대상황으로 주종관계이기는 하지만 노측과 사측의 마음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오늘 이시대에 큰 울림이 된다. 〈편집자주〉

### 勞使가 공생하는 길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임을 할당하고 음식과 급료를 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하고, 진귀한 음식과 급료를 주고, 적당한 때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갈로바다숫타〉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에 대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중에 잠자리에 들고 주어진 것만을 받고 맡은 일을 잘 처리하며 명예와 창찬을 퍼뜨리라.
〈시갈로바다숫타〉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이것은 파멸의 문이다.〈숫타니파타〉

만일 한 노동자가 재화나 곡식, 금이나 은을 얻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는 다른 노동자를 충실한 일꾼으로 삼아 자신은 기쁨을 만끽하고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그 노동자를 자기보다 일찍 일어나게 하고 늦게까지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아함〉

축재를 지향해야하는 목적은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하인과 일군과 남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중아함〉

장자는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하인과 집사를 존경해 부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힘에 알맞게 부리며, 때에 맞추어 의복을 주며,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때때로 재계하게 하며, 병이 나면 쉬게 함이다.
〈선생자경〉

주인은 남종과 여종을 돌보는 데 있어서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음식과 옷을 줄 이요, 둘째는 병이 나면 의사를 불러 치료함이요, 셋째는 함부로 때리지 않음이요, 넷째는 그 사유물을 뺏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나누어 주는 물건을 공평하게 함이다. 〈육방예경〉

주인은 세속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종들에게도 주고 그 반만을 제가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의식을 제만 차지해 멋대로 입고 먹고 하여 종의 몫은 아껴서 주지 않으며, 설사 준다해도 시기에 맞지 않게 주며, 많이 주어야 할 것을 조금 주어 늘 부족하게 한다면, 이는 세상이 가장 큰 그릇된 행위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니건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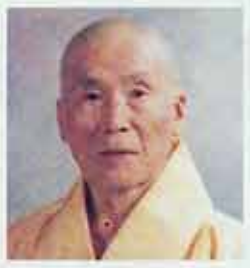
관련기사 3면

조계총림 방장 일각스님
일붕선교종 종정 경보스님

# 원적

## 송광사 · 일붕사서 사부대중 애도 영결 다비식


◇故 일각스님


◇故 경보스님

승보조실 송광사 조계총림 제3대 방장 화광 일각(退光 覺聖)스님이 6월23일 오후 9시 30분 송광사 삼일암에서 법랍 50세 세수 73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연이어 일붕선교종 총정 서경보스님이 6월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세검정 세계불교법왕청에서 법랍64세 세수 82세로 열반했다. 〈관련기사 2면〉

일각스님은 1947년 지리산 칠불암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범어사 상원사등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했다.

6월27일 송광사에서 봉행된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원로 중진스님, 전남부지사, 순천시장 등 지역기관장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법정스님의 행장소개 혜암스님의 영결사에 이어 월하 종정스님의 법어 송무원장 월주스님의 조사, 헌화순으로 진행됐다.

일붕 서경보스님은 1914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19세에 출가해 동국대교수, 불국사 주지,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다. 스님은 88년 선과 교를 병합하고자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으며 92년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해 초대법왕에 취임했다. 스님은 또한 69년 미 템플대에서 '한국선불교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30여부문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저술과 선서보급등 수행과 포교에 전념했다. 스님의 영결 다비식은 7월1일 동국대 운동장과 경남 일붕사에서 거행됐다.
〈이준엽 · 김원우 기자〉


◇비가 간간히 뿌리는 가운데 일각스님 다비대에 불이 지펴지자 사부대중은 생시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큰스님의 뜻을 이어 더욱 정진할 것을 가원했다.

## "스님 조계산에 불지릅니다 나오시든지 계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 6월 27일 일각스님 조계산 떠나시던 날

조계총림 방장 회광당 일각 대종사(승찬스님)의 영결식은 다섯번 울린 명종의 여운이 조계산에 맴도는 가운데 시작됐다. 청혼독경, 법정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생사가 둘이 아님을 알려주는듯 스님의 육성법문이 경내에 퍼지자 빗속의 사부대중은 흐느끼며 스님의 열반을 애도했다.

"스님의 몸이 出世하신 것도 중생을 위함이요, 입적에 드신 것도 중생들에게 무상설법을 하고 대각의 길을 인도함이로다…. 스님 다시 오셔서 종단발전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 이 영결식은 종문에 가풍이요, 분향은 옛길을 통했도다." 원로회의의장 혜암스님(해인사 방장)의 영결사다.

종정 월하스님은 이렇게 법어를 내렸다.

"萬古淸風任去來/淸淨本然是何物/曹溪山下一滴水/滅化光溫大海會"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조사에서 "정화불사에 남다른 역량을 보이셨을뿐 아니라 보조국사의 법맥을 전승 조계선풍을 내외에 드날리시더니 갑자기 세연을 끊고 열반에 드시니 허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며 애통해 했다.

종회의장 설정스님(장례위원장), 전남도지사를 대신한 박행인 부지사, 방성룡 순천시장도 "늘 천진등안으로 맑없는 가운데 道를 펴시다 말없이 가신 스님의 뜻을 받아 게으름없이 정진할것"을 다짐하는 조사를 했다.

문도 · 문중 · 총림 · 종단대표의 헌화 · 헌향속에 일각스님은 금생의 옷을 갈아 입었다. 이윽고 고별을 알리는 108타종이 울렸다. 일각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필두로 오방번 등 5백여 만장이 인도하는 가운데 산내 다비장으로 향했다.

"스님 조계산에 불 지릅니다. 나오시든지 계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법구가 다비대에 안치되자 큰 외침이 있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사부대중의 지극한 염불속에서 일각스님은 무엇이라 답했을까.

순천=최정희 편집국장

# 지방승가대 정규대 승격 가능

## 해인 · 운문 · 동학 · 봉녕사등…설립 기준요건 완화

해인사 운문사 동학사 봉녕사 등 20여개 지방승가대학(강원)이 정규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다.

오는 7월 중순 승인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대학설립기준령(안)은 학생정원의 하한선을 두지 않는 등 요건을 크게 완화해 불교계의 추진의지만 합의된다면 지방승가대학 정규대설립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인스님이 1백명이상인 해인사 운문사 봉녕사 동학사승가대학등 일부 승가대학의 경우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요건만 구비한다면 불교계의 위상과 면모를 갖춘 정규대학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학설립기준령(안)에 따르면 교원은 1인당 학생수 비율을 25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승가대학이 학생정원을 2백명으로 할 경우 8명의 교수 인원이면 된다. 또 교사는 강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및 부대시설의 교육기본시설과 도서관 체육관 강당 및 그 부대시설의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을 12㎡로 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승가대학은 2백명 기준 2400㎡, 약727평 정도의 교사를 확보하면 정규대설립이 가능하다. 교지면적에 있어서 교육부는 "교사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갖추고, 매년 재산총액 즉 학생수 등록금 전액에 따른 5%의 유 · 부동 소득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예고해 일부 지방승가대학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승가대학이 정규대학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을 위한 교육용부지의 확보가 선결요건이다. 따라서 현 지방승가대학은 종단으로부터 교육용토지를 기증받아 법인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있는 사찰을 교육부로 등록이전하기 위해 각 지방승가대학은 종단과 교육부, 문화체육부간의 상호합의와 이해를 도출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승가대학의 정규대설립 추진에 대해 아직 조계종단차원의 공식논의는 물론 종단 교육관련 및 해당 승가대학 관계자들간의 의견교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승가대가 정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자양성교육기관은 일반 세속 학위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행자로서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강원체계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스님의 사회적 위상과 교육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도필선 기자〉

## 데생용 미륵반가상 전국 중·고교에 보냅시다

### 동참해주신 분


◇ 윤종영교장

△윤종영 영림중 교장: 영림중(2구좌) △고형일 전남대교수: 염산성지고(1구좌) △김진조: 동해시 북평고 부평중(2구좌) △박화문: 밀양여고(1구좌)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바랍니다.

특집 : 7월문화인물 도선국사 6·7면
모악산 송신탑 이전 요구 15면
불교미술대전 시상 · 운영 '오픈' 13면
선수촌 '한마음불자회' 필승법회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무다피아 모뎀번호 792-1550-3

고객과 함께, 자연과 함께



금호건설은 고객의 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건설시장의 수많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뢰받는 금호타운의 건립외에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지하공간 개발사업, 각종 환경 관련산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더 좋은 미래환경을 만들어 가는 금호건설 – 도시의 입체적 활용, 종합레저타운, 새로운 생활환경의 조성 등 21세기형 미래공간의 건설을 통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는 금호건설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금호건설

■건설 전부문 ISO 9001인증획득

## 사 설

# 소비자보호는 불교가르침

비가 내리는 틈을 타, 독극물에 가까운 폐수를 한탄강에 흘려보내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는 죽음의 강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 그 화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낙동강의 조개가 썩은 오수를 머금고 입을 벌리고 백사장에 죽어 널부러졌다. 옛 인도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비참과 고통임을 일깨우기 위해 갠지스강가에서 죽은 시체가 부패해 가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도록 권유한 풍습이 있다. 그것을 촉루관 혹은 백골관이라 했던가. 이제 그런 인위적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눈을 뜨면 절망과 공포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

세계는 본래 안팎이 없다. 공간적 거리도 시간적 지연도 없다. 한 순간에 세계가 나투기도 하고 한 순간에 세계가 한꺼번에 꺼져간다. 그것이 연기(緣起)의 실상(實相)이다. 저 기름 뒤집어 쓴 걸프전의 가마우지가 먼 곳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둡고 순진한 사람이다. 한탄강의 쏘가리와 낙동강의 조개는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다. 그것이 내 몸 속에서 나를 죽이고, 또 그 윤회가 흙을 죽이고 곡식을 죽이고, 다시 내 이웃과 가족을 죽인다. 아마도 핵이 손쓰기 전에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를 마감할는지도 모른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을 살려야 한다. 환경의 유지와 보호는 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유럽에서 광우병 소동으로 경제 위기가 점쳐지고 있는 판에, 서울에서 도축되는 소 가운데 상당수가 병든 소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자급자족의 시대에서는 모든 일상적 필요를 가족 혹은 소규모의 부족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분업화되고, 그리하여 유통이라는 것이 새로운 상업의 개념으로 등장함으로써 일상은 우리의 통제밖으로 벗어났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같은 유기적 거대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이 연기의 소식을 가장 잘 실감시켜 주는지도 모른다. 곡식이 농부의 손에서 자라 우리네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단계와 협력을 거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빠지거나 소홀해도 흐름이 막히거나 일탈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혼란으로 이어진다. 화엄(華嚴)을 알리는 이보다 실제적인 교과서가 어디 있는가. 문제는 이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통제하는 일이다.

교계가 이에 발벗고 나섰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형이상학적 교설을 중생들에게 몸으로 깨우칠 다시 없는 기회이다.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히 했던 소비자 보호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오는 17일 정식으로 총지종 총지사에 현판을 걸고 사무실을 마련해 불교소비자보호단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니 벌써부터 그 역할에 기대되는 바 크다.

사업계획으로는 총지종 주관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보호시책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을 교육계몽하며,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창구를 개설한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물품에 대한 시험과 검역, 용역거래 방법까지 감시하겠다고 하니 대단한 의욕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이 구체적인 만큼 전문적 훈련을 필요로 하고, 또한 여러 다른 소비자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가 요망된다. 불자들은 이 사업이 불교의 본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절실한 사안임을 주지하여, 자발적으로 수희동참(隨喜同參)하기를 촉구한다.

질서는, 모든 가치있는 것이 그렇듯이,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12년간 방장으로 주석했던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을 떠나는 일각스님 법구.



◇불교포교를 위해 전세계 157개국을 종횡무진했던 서경보스님. 사진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고 담소하는 모습.

# "두 큰스님 빈자리 정진으로 채우자"

6월23일과 25일 "연거퍼 두 선지식이 우리곁을 떠났다. 평생을 선수행으로 정진하며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조계총림 방장 일각스님, 끝간데 없는 포교를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서경보스님. 스님들의 지나온 발자취가 뚜렷하기에 열반소식을 접한 불자들은 그 빈자리를 허허로워 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지고 있다. 〈편집자 주〉

## 회광 일각스님 행장

### 계율 생명처럼 삼고 참선수행 '후학귀감'

### 원로회의 부의장·수계산림 증사등 역임

일각스님은 효봉(1888~1966), 구산(1909~1983)스님의 뒤를 이어 송광사 근대선맥을 이어왔다. 1924년 평남 개천출신인 스님은 46년 동국대 국문학과를 중퇴하고 이듬해에 지리산 칠불암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55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출가전 평양 죽남국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어느날 한 한생을 훈화하면서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되었다. 스님은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가리킬수 없다'며 교사직을 사직했다. 그후 불교소설, 경전을 탐독하던 스님은 출가를 결심했다. 절구통수좌로 잘 알려진 효봉스님 밑에서 행자때부터 참선에 몰두, 전국제방의 선원을 다니며 정진에 임했다.

손 한 번들고 발 한 번 옮기는 것이 곧 부처님앞에 예배올리는 것이요(一擧一投卽禮佛)/말 한마디 한마디 계속 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을 외움이 되는것이다(言言語語是誦經)/만약에 그대가 부처님앞에 예배도 올리지 않고 경전도 외우지 않으면(若無禮佛誦經時)/한가한날 누각위에 매달려 있는 하늘보다 더 큰종을 볼수 있으리(閑日樓上一太鐘)

스님의 오도송이다.

스님은 평소 송광사의 '목우가풍'을 중히 여기면서 "소먹이는 가풍이란 사람이 좋은일 할 때는 더 잘하도록 풀어놔 주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못하도록 경책해주는 것이다"며 후학을 이끌었다. 또한 계율을 생명으로 여겨 24절로 된 '오계의 노래'를 지어 보급했으며 '큰스님의 노래'를 만들어 수행자의 자세를 경책했다.

68년 스님이 태국으로 3년간 유학을 떠난 것도 전통계맥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인도, 동남아 불교의 계율을 공부한후 태국스님 10분을 통도사 금강계단에 초청했다. 그 계단에서 자운, 일타스님 등 53명의 스님이 수계를 받았다.

84년 조계총림 3대방장에 추대된 스님은 94년 4대방장으로 재추대되어 보조국사의 법맥을 전승하고 조계선풍을 내외에 드날렸다. 스님은 수행뿐아니라 용화사 미래사 송광사 등서 주지를 역임하면서 각종 불사를 단행하고 종단개혁에도 앞장섰다. 송광사에서 주지와 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8차에 걸쳐 중창불사를 펼쳐 조계총림의 면모를 일신했다. 스님은 또 전국 최대의 신행단체인 불일회 총재와 효봉문도회 문장을 맡아왔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조계종단 수계산림증사 등을 역임하며 종단과 불교발전에 앞장서 왔다. 〈엽〉

**臨終偈**

念起念滅卽生死(염기염멸즉생사)
無起無滅卽涅槃(무기무멸즉열반)
生死涅槃誰由事(생사열반수유사)
古往今來手裏掌(고왕금래수이장)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곧 생사요/일어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곧 열반이다/생사와 열반이 누구를 말미암아 있는 일이냐/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손등과 손바닥이니라

### 26개 분야 126개 박사학위·저서 1042권

### 88년 일붕선교종 창종…세계포교 전력

서경보스님은 지난 6월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법왕청에서 열반하는 순간까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매일 새벽 3시면 아침예불과 산행으로 시작하여 한달에 25일을 국내의 각지를 돌며 세계평화와 불교포교에 전념했던 스님은 최근 중국의 구화산과 백마산에 평화통일 시비를 건립하고 연이어 미국포교에 나선뒤 급격한 건강악화와 노환으로 열반에 들었다.

서경보스님은 1914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생했다. 19세에 남제주군 산방굴사에서 강혜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전주 위봉사와 개운사 대원암 금산사강원 오대산선원을 거쳐 일본 임제전문대학과 동국대 불교과학을 졸업했다.

학승이자 교육자였던 스님은 1969년 미국 템플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철학 종교학 법학 언어학 인류학 종교학등 26개분야 1백26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1953년부터 해인대 원광대 동아대 동국대등 국내외 25개 대학에서 불교및 철학을 강의하고 2백여개 대학 초청세미나를 갖은바 있으며 불교사상 교양전집 1천42권의 저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1962년 경주 불국사주지, 조계종 원로의원등 조계종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스님은 1988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해 종정에 올랐다. 세계인류평화 및 세계전법 세계불교의 단합을 위해 제 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국제대회에서 세계불교 법왕청 설립을 제안하고 86년부터 설립위원회를 결성하여 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세계법왕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에 취임하여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 승려의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94년 제 2차 법왕청 총회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세계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30여년 전부터 한반도 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7천만 동포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비를 7백57곳에 건립했고 유엔의 전권대사 유네스코 특사로 활약했으며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폐기등을 강조해온 업적으로 승려로는 유일하게 지난해와 올해 유엔본부 세계평화교육자회로부터 2회연속 노벨평화상후보로 추천됐었다.

특히 스님은 최다박사학위, 최다저서, 최다통일기원비 건립, 50만점에 이르는 최다선필, 최대석굴법당 건립으로 기네스북에도 5관왕으로 기록돼 있다. 〈우〉

## 일붕 경보스님 행장

**臨終偈**

蛇化登龍一角生(사화등용일각생)
松潭風雨萬人驚(송담풍우만인경)
南城春至魔雲盡(남성춘지마운진)
北嶺夜來禪月明(북령야래선월명)

뱀이 화하여 용이 되어 뿔이 하나가 났는데/송담에는 풍우가 크게 일어나 만인이 놀랐다/남쪽 성에 새봄이 오니 마운이 다 없어지고/북쪽 영에 밤이 되니 선월이 밝아온다

## 현대만평

박구원




이러다 병나겠네!

# 訃 告

松廣寺 曹溪叢林 方丈이신 廻光堂 壹覺 大宗師께서 6月23日(陰 5月 8日) 午後9時30分 松廣寺 三日庵에서 入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一. 永訣日時 : 佛紀2540年(1996年)6月27日(陰,5月12日)午前 10時
一. 永訣場所 : 松廣寺 曹溪叢林 大道場
一. 茶 毘 場 : 松廣寺 茶毘場

證　　明 : 月下, 昔珠, 西翁, 圓潭, 月山, 觀應
顧　　問 : 月珠, 應潭, 松潭, 眞際, 靈波, 道川, 梵龍, 飛湧, 杲山, 道堅, 智宗, 淸霞, 日陀, 道圓, 性壽, 碧巖, 綠園, 光德, 知有, 圓山, 性陀, 智冠, 法傳, 正日
葬禮委員長 : 雪靖(曹溪宗中央宗會議長)
副委員長 : 月誕, 玄海, 岩度, 勤日, 泰應, 宗源, 興敎, 無比, 明正, 慧印, 世敏, 圓明, 道泳, 宗眞, 雲霞, 休庵, 靑雲, 一牛, 月性, 玄虎, 宋錫求, 朴完一, 權翊鉉
葬禮委員 : 曉峰門徒一同, 全國敎區本寺住持一同, 中央宗會議員一同, 全國比丘尼會長團一同, 曹溪宗 全國信徒會 및 傘下 信徒會長團一同, 全國佛日會會長團一同, 佛日奬學會任員一同, 九山奬學會任員一同, 普照思想硏究院任員一同,
執行委員長 : 玄杲(松廣寺 住持)
副委員長 : 志源
委　　員 : 智眞, 梵琮, 玄鋒, 玄田, 玄智, 靈照, 知玄
總務部長 : 法鏡
委　　員 : 各 末寺庵 住持一同
儀典部長 : 性淏
委　　員 : 宗旭, 玄藏, 一撤, 德祖
儀式部長 : 一歸
委　　員 : 一明, 一眞, 無然, 一道, 靈寂
財務部長 : 靈眞
委　　員 : 寶鏡, 靈明, 志賢,
涉外 및 弘報部長 : 大圓
委　　員 : 古鏡, 正道, 正印, 正行
護　　喪 : 慧菴(曹溪宗元老會議 議長)
門中代表 : 秀山
門徒代表 : 慈經
門　　徒
　師　　弟 : 秀山, 法頂, 法興, 九菴, 永修, 知幻
　上　　佐 : 慈經, 慈空, 無字, 日寒, 月暑, 惺幻, 惺牛, 慈嚴, 寶林, 正果, 五眼, 梧鳳, 正歪, 性伎, 道伎, 石牛, 行禪, 行眞, 戒星, 道幻, 善住, 步天, 還如, 正圓
　外國人上座 : 大法(캐나다), 太利(이태리), 大宇(미국), 大悟(미국), 大慧(덴마크), 正見(유고슬라비아)

**廻光堂 壹覺 大宗師 曹溪叢林葬 葬禮委員會**

# 도굴…파손…무관심…중병앓는 聖山

특별기획

## 경주남산 재조명



머리없는 불상
상태만 온전했더라면 국보급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주는 냉골 여래좌상. 가사끈 매듭의 빼어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연재 순서
① 총 론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③ 남산 훼손실태**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⑥ 남산으로 떠나자

## 머리없는 석불·깨진석탑 복원않고 방치
## 불법 분묘 4천여기 순환로 생태계 파괴

남산을 오르다보면 안내자로부터 "상태만 온전했더라면 국보급으로 손색없을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냉골 어귀 길옆에 목 윗부분이 없어진 채 앉아있는 냉골여래좌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왼쪽 어깨에 맨 가사끈 매듭이 선명한 조각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듬직한 체구에 앉아있는 모습이 편안하면서도 위풍당당하다. 머리가 없어진채로 부근 계곡에 파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의 징검다리로 쓰이다가 최근에야 현재의 위치에 옮겨놓았다. 원위치인지는 알 수 없다.

### 관리예산 인력 절대부족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남산은 영구보존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현지 사람들의 답변은 회의적이다. 남산사랑모임 회장 김덕수씨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94년 10번째의 남산신성비가 발견됐는데, 등산객이 집에까지 운반했다가 이틀뒤에 국립경주박물관에 신고됐다. 다행히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지만 이 바람에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지금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남산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남산에서 가장 큰 부처님인 높이 10m의 약수골 마애불도 머리가 없다. 몸체는 큰바위에 새기고 머리와 광배는 별도의 돌로 조각해 얹었던 흔적만 보인다. 석탑도 예외가 아니다. 포석정 석탑. 지금 석재들은 다 없어지고 한 개의 지붕 옥개석 네토막이 언덕위에 있고, 또 한토막의 옥개석은 언덕밑에 있다. 이같은 파손은 대부분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도굴과 반출 때문이다. 멀리는 조선시대 배불정책으로 사찰이 폐쇄되어 돌볼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사골 제1사지와 용장골 17사지 잠늠골 사지의 탑은 탑재가 유실되지 않고 넘어진 채로 남아 있어 적은 예산으로도 복원이 가능한데도 방치돼 있다. 물론 1천년도 훨씬 넘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이만큼이라도 보존되어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훼손된 대부분의 석불 석탑이 인위적으로 파손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마애불들이라는데서 알 수 있다.

남산은 1920~30년 사이 일본학자들에 의해 조사되기 시작했고, 1940년 이를 토대로 조선총독부에서 최초의 남산조사보고서인 〈경주남산불적〉이라는 책을 펴냈다. 정작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 민족에 의한 조사는 없었다. 80년에 와서야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 와서야 경주시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보호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사진과 글로 기록을 남기고, 이것들을 책으로 엮어 남산이 지닌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겨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훼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삼릉계곡 마애여래좌상 아래. 3년생이 안된 어린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뒹굴고 있었다. 분재 목적으로 채취했다가 버린 것으로 보였다. 무분별한 산행이 낳은 문화유적지 훼손현장이었다. 최근에는 인근의 울산 포항지역 공단 근로자들의 극기훈련장으로 남산이 이용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모의소총을 쏘며 전투를 방불케 하는 서바이벌게임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신고로 제지되기도 했다.

불법분묘 문제도 심각하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삼릉골 마애관음보살상 부근에만도 서쪽과 아래쪽에 2기의 분묘가 있다. 이 분묘들은 최근에 설치된 것인지 봉분에 잔디도 입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비석과 상석도 없었다. 이같은 분묘가 남산 일원에 많게는 4천여기 이른다고 추산하지만 경주사적관리사무소에서는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3명의 관리인원(이 가운데 6명은 청소원)으로 40여개 계곡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동식물·유물조사도 미비

금오봉과 고위봉 정상의 헬기장과 용장골 입구의 교도소 이전은 남산보호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부흥사 위 전망대도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는 지적이다. 윤경렬 선생은 "부득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조형물 하나라도 어떻게 남산에 어울리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산은 지난해에 약 50여만명이 다녀갔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아직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봉산 등산로와 다르지 않게 답사로는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소나무숲이 장관을 이루는 삼릉계곡은 남산 계곡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이곳의 폭 3m의 답사길은 소나무 뿌리들이 겉으로 드러난 채 등산객과 답사객들의 발길에 채이고 있다. 이미 30cm 이상 파여 황토흙은 벗겨지고 2차지층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다 고속철도 노선과 역사가 남산을 따라 들어설 경우 최소한의 손길로 부처님과 자연과 사람의 융합의 극치를 보여주는 남산의 남산다움의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산은 현재 동식물 분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성비 피해가 공단이 전혀 없는 제주도 한라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남산은 국립공원과 더불어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다. 훼손 이후의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동식물 분포 및 유물 유적의 종합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은 무방비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민족에게는 물론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경주남산은 여느 산과 다름없이 개발과 공해에 시달리며 제모습을 잃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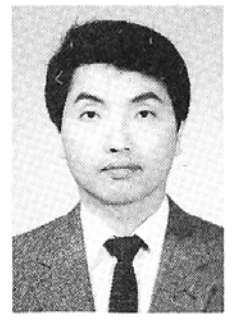
경주=정성운 기자



◇삼릉골 마애관음보살상 서쪽에 있는 불법분묘. 잔디도 입히지 않아 흉물스럽다.

## 시론

# 노사악순환 단절하자



노 응 원
〈충남대 교수·경제학〉

지난 6월 20일 마라톤 협상 끝에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사들이 극적으로 단체협약을 타결하여 다행히 교통대란과 통신대란은 모면하였다. 이번 사태에서 공통된 주요 쟁점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문제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정부가 복직문제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종래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데 있다. 이러한 대타협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 양당사자의 성숙한 협상자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 해고자 만들지 않는 제도

93년 문민정부 출범후 노동부에 복직을 신청한 1천6백여명의 해고 근로자들 중 95년까지 복직된 자는 586명이다. 그 중 전교조 사태로 해고된 교원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철도, 지하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해고자가 절반을 넘는다.

이번에 정부가 복직문제를 산업평화 차원에서 사용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전향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고질화된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를 스스로 먼저 풀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것은 장차 민간부문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해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 지나침을 참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량없는 자비심을 발하여 하루 빨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 근로자의 복직도 중요하지만, 장차 그러한 해고자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 4월 24일 발표된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에 따라 노사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노사관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중재 규정도 이번에 개혁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하에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일단 중재에 회부하면, 공공부문 노조는 15일간 파업할 수 없으며 파업은 불법이다. 그리고 노사 쌍방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락하거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도하에서도 노조가 파업하여 노조 집행부가 사법처리되고 대량 해고되었다. 이들의 복직문제가 또다시 노조의 단체협상의 핵심사항으로 등장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정부는 해고자 복직문제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이는 또다시 파업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대중교통이나 통신이 두절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공공부문 노조도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조가 시민들을 볼모로 하여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일리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파업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정부당국의 신념에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굴복하여야 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볼모로 삼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경기가 불황이면 경제가 어렵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호황이면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 생산성·근로의욕 높여야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21세기 정보사회를 여는 열쇠는 구태의연한 투쟁과 억압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의 창의력과 넘치는 활력이며, 너와 내가 하나 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도 하나로 되어야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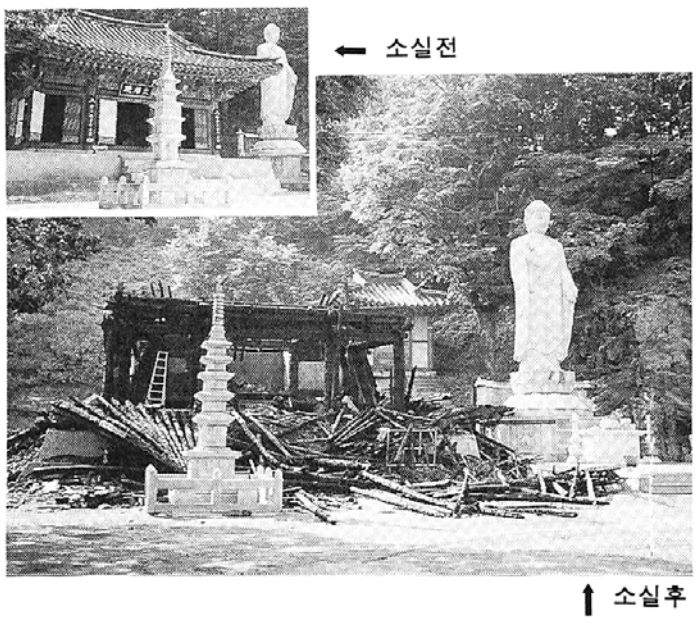
이제 파업은 무조건 안된다거나 노동조합은 무조건 결성할 수 없다는 식의 썩은 새끼줄은 버려야 한다. 노조가 없어도 있는 것 못지 않고 파업해도 안하니만 못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고치고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도 민간부문에 못지 않은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와 책임경영제를 시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 전통사찰 제 74호 영장산 망경암
## 대웅전 복원불사 및 백일기도 권선문

서울 남산이 훤히 마주 보이는 마애불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02호 )
부처님께 고려조 임금님들이 기도 드리던 유서 깊은 도심속의 전통사찰 망경암(望京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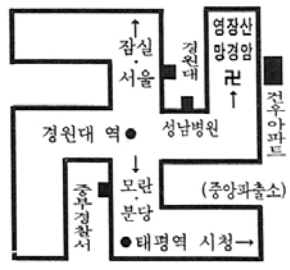
이곳 대웅전이 불기2540.4.7. 밤 0시경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소실되어 이로 인한 아픔을 딛고 빠른 시일내 복원하고져 합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만 중생이 안식처를 얻는다"합니다. 소실된 대웅전 복원불사 원만성취 기도와 더불어 199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백일기도를 하오니 좋은 인연이 될 대웅전 복원불사와 대학수능시험 기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와 동참을 권합니다.

● 기도시작 : 1996년 8월 6일(음력 6월 22일) 오전 10시
● 기도마침 : 1996년 11월13일(음력 10월 3일) 오전 10시




● 대웅전 불사 권선내용 : 기둥, 주춧돌, 대들보, 석가래, 기와, 용두, 문짝
● 일반시주는 1구좌에 30만원 (5만원×6개월 분납됨) 시주자 현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온라인 : 국민은행 213-01-0349-715, 우체국 102335-0194943-11 (예금주 : 망경암)
● 대웅전 불사에 동참 하시면 편리하게 시주 하실수 있는 은행 지로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은행지로번호 : 7627758, 시중은행에도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 망경암 약도




※ 문의전화 : (0342)753-3090(사무실)
(팩스)753-3091(주지실)
753-3092(법사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장산 **망 경 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3-1호

## 법회 안내

(사)대한불교삼보회
(02)913-2859

삼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7월 7·14일 정병조교수
7월 21·28일 송찬우교수
8월 4일 월운스님
8월 11일 송찬우교수
8월 18일 월운스님
8월 25일 종범스님

성주암(02)877-7180

거사림법회 매주 일 오전6시
연화법회 매월 3일(음)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1·3주 오후2시
천수경강의 매월 1·3주 오전10시

안정사(02)292-2439

인등법회 매월 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선원사(0671)31-0108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미륵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대불련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회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토포교원(02)737-0853

외국인법회 셋째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학생법회 매주 월 오후7시
청년정토법회 매주 수 오후7시
보살님법회 매주 수 오전10시
거사림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정토불교대학 화·목 오후7시30분

선운사(02)993-3065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방생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낮1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천은정사(0342)701-0770

정기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15~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성지순례 매월 20일(음) 오전7시

옥천사(0556)72-010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낮12시
미타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대한법화종 창종 51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대호)은 6월 27일 종정 구암스님, 원로의장 금파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원융종 총무원장 일공,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융화종 총무원장 법등, 천태종 총무부장 도원스님, 미얀마 오포민트대사, 국회의원 한병태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캐피탈호텔에서 창종 51주년 기념법회 및 포교원장 지우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 월주스님 종로경찰서 전경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각부 부장은 6월 21일 종로경찰서(서장 목영언)를 방문, 서장이하 전투경찰 2천여명을 격려했다.

월주스님은 이 자리에서 연등축제에서의 경찰협조와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 연등축제의 지속적인 도움을 당부했다. 또 스님은 감사패와 라면 4백80박스, 떡 1천6백명분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 남북합의서 이행촉구 국토순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목회자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들로 구성된 '민족의 화합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 소속 종교인 20여명이 6월 24일 제주에서 판문점까지 남북합의서 이행촉구를 위한 국토순례에 나섰다. 순례단은 거리행진과 합의서 이행촉구 서명운동 등을 펼친다.



## 민족사 바로세우기 촉구대회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는 한일협정 체결 3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사 바로세우기' 촉구대회를 열고 한일 양국정부에 한일협정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곧 개정 '한일협정'을 마련, 양국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민족돕기…' 발기대회 참석

월주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6월21일 천도교수운회관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기인대회에 참석, "이념이나 체제는 다르지만 북한주민은 엄연한 우리민족이며 겨레"라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 신촌 심인당 헌공불사



락혜통리원장(진각종)은 6월 20일 서울지역 일원의 교화활성화를 위해 대지 1백33평 연건평 3백12평의 신촌심인당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 관무량수불경 법공양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은 6월24일 대각사에서 모친 최대성자보살의 49재를 거행하면서 직접 번역한 〈불설관무량수불경〉을 법공양했다. 이날 해인사방장 혜암스님이 생사가 둘이 아닌 영가법어를 설했다.

### 교통사고 사망영가 천도재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7월 11일 오전11시 금강사에서 전국 교통사고 사망 영가천도재를 봉행한다. (02)993-3744

### 중앙승가대에 장서 기증

송산스님(전 중앙승가대학장)은 6월 3일 그동안 소장해 오던 장서 1천5백권을 중앙승가대에 기증했다.

### '교통안전' 휘호 보시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이 최근 몇년간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교통문화 생명보호' '사회안정 시민보호' '과속 음주추방으로 내 생명 보호하자'는 등의 족자용 붓글씨를 써줘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생명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같은 불사를 해온 스님의 활동은 결국 건설교통부까지 전해져, 추경석 건교부 부장관이 6월 26일 스님에게 붓·먹·벼루 등을 보내게 됐다. 이에 스님은 같은 내용의 족자용 붓글씨 2천장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 구연동화 잔치 열어



도후스님(구로종합복지관 관장)은 6월29일 구로복지관 3층 강당에서 유치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연동화잔치를 개최했다.

### 평통위원장 간담회 참석

법혜스님((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6월2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민주평통 상임분과위원장 간담회에 참석, 통일에 대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 '새싹들의 그림잔치' 행사

심산스님(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6월 29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새싹들의 그림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 제주소년원에 불상봉불

혜경스님(제주소년원 불상조성추진위원장)은 6월 20일 제주소년원에 불상을 봉안하고 봉불식을 봉행했다.

### 실크로드 답사후 귀국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는 중국의 양자강유역 및 실크로드의 불교유적을 답사하고 지난 2일 귀국했다.

### 문화종합지 '이매진' 창간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은 6월24일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문화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문화종합잡지 월간 〈이매진〉(발행인겸 편집인 김진용) 창간 리셉션을 가졌다.

### 31년 공직생활 정년퇴임



김경복회장(대한불교 달마회)은 지난 6월 말로 통계청 부이사관직에서 정년퇴임했다. 경제관계 부처에서 31년간 공직생활을 한 김회장은 퇴임후 신행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 포교소책자 '금강경' 발행



박동기씨(세계불교우의회 한국본부장)는 최근 금강경의 이해와 체득을 위한 포교소책자 〈금강경〉을 발행했다. 이 책에는 위빠사나 수행법과 영문금강경도 실었다.

### '한중일 가야금협주' CD 발매

박범훈씨(국립국악관현악단장)는 최근 신나라레코드사에서 한중일 세나라의 가야금을 한 곳에 모아 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 '한중일 가야금 협주곡' CD음반을 냈다.



## 호국금강사 전몰장병 위령재

6·25 46주년을 맞아 경기도 포천군 호국 금강사(주지 정상경)가 지난 25일 '제13회 6·25 전몰장병 및 희생영령 합동 위령대재'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교계인사 군불자등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대재는 영가천도의식을 시작으로 위령대재, 탑돌이 방생에 이어 도피안사 월정사 전망대 백마고지 등 사찰 및 6·25 전적지를 견학했다.

## 인 사

태고종
◇단위 기관장
△법인행정원장 보안(현 충북지방종회의장) △중앙연수원장 운곡(전 포교원장) △중앙 포교원장 자월(전 총무부장) △법규의원장 월해(대전종무원장) △한국불교신문사 사장 월운(자은사 주지)

### 중앙승가대 제5대 신임학장 지 하 스님



"중앙승가대학의 학장 자리를 놓고 많은 이들이 어려운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할 일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21일 중앙승가대학 이사회에서 제5대 신임학장으로 선임된 지하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은 "앞으로 중앙승가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자세를 견지해 승가대학이 정치집단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것이다"고 강조하고, "부처님과 사부대중을 믿고, 학사이전과 승가교육의 체계적확립을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7월19일 학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지하스님은 "학교 제반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내는 데는 전종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름방학내 개운사 도량정비, 오는 9월 김포학사공사 착공 등 학사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6월 21일 이사회에서 구성된 학사이전추진위원을 통한 활발한 모금과 홍보활동을 통해 사부대중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학사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학사이전·교육체계 확립에 최선"

도필선 기자

## 게시판

▲하기수련특강=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성호)는 오는 20~21일 강릉 등명락가사에서 제2회 하기수련특강 및 동문단합대회를 개최한다. (02)722-0911

▲신입생 모집=만해대학은 96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정규반·통신반이며 접수마감은 8월 20일까지. (02)738-3386

▲불교문화기행=부천 석왕사청년회는 오는 6~7일 강원도 건봉사, 통일전망대, 청간정, 송지호 일대로 제3회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032)663-7772

▲불교교리강좌=국청회는 3개월과정의 불교교리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후7시이며, 개강은 오는 5일. (02)730-1250

▲꿈나무학습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꿈나무 학습교실'을 마련한다. (02)421-6077

▲한문강좌=(사)대한불교법사회 법사원 불교대학은 7월부터 6개월과정으로 한문교육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02)264-1829

▲고전 교양강좌=(사)전통문화연구회(회장 안병주)는 개원 8주년을 맞아 사자소학, 동몽선습, 소학, 논어 등 하계고전문화 교양강좌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62-8401

▲간사모집=세계 기아, 질병, 아동 구제기구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지구촌 가난돕기에 앞장설 활동적인 실무간사를 모집한다. (02)980-5120

이전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스님)은 6월 21일 연구원 사무실을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 1506호로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다. (02)736-6202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孝 사상의 3大경전 부모은중경 우란분경 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부모님에 대한 孝사상을 고취시키십시다.

부모은중경 · 목련경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우리말 부모은중경
제2부 ·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우리말 목련경
제3부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우란분회란 · 우리말 우란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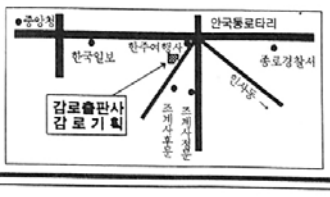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가격/1권당 1,2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금장 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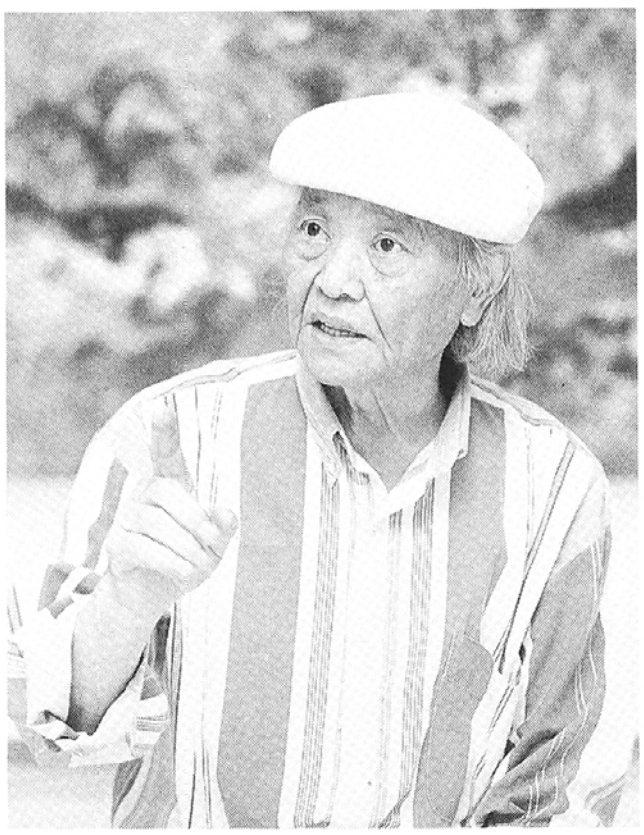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 "끊임없이 나를 새로 그려요"

## 산문밖의 수행

### 원로화가 한봉덕 옹



## 50년 그림 수행… 수백장 스케치 통해 한장 완성
## 학을 주소재 삼아 갈등·고뇌 탈출 대자유인 추구

"그림은 소리없는 찬가입니다. 그림을 볼때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유형 무형으로 달려오고 달려가는 이 번거롭고 복잡하고 번뇌덩어리인 현실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 처리해야 할까. 이것이 늘 나에게는 그림그리는 화두였습니다."

50여년간 그림을 그려온 화가라면 스케치는 물론 색에 있어서도 달인의 경지일 텐데 한봉덕화백(73)은 요즘도 그림 한장을 완성시키기 위해 수백장의 스케치를 한다. 1만여장이라는 스케치그림을 모아 지난 86년엔 〈한봉덕 소묘집〉을 내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부드러운 모필로 유화를 그린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마치 사찰이나 고구려 벽화에서와 같은 유현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강렬하고도 화려한 색깔과 날카로운 선묘, 부드러운 질감이 시공을 초월해 언제나 독특하고 신선한 감각을 준다.

"나에게는 캔버스가 하나의 도량입니다. 하얀 캔버스앞에 앉아 있을 때는 커다란 법당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그럴때면 법당에서처럼 잡념이 사라지고 그린다는 일념만이 남지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번뇌는 끊이지 않고… 그러고 보면 그림 그릴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비구상을 주로 하는 그의 작품에서 일필휘지로 그려진 산은 있는듯 하면서 없고 없는듯 하면서도 뚜렷이 있다. 산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그의 온 마음이 붓끝에 전해지면 그것이 표현된 화면에는 궁극에는 대상이 사라지고 순수 추상형태와 색채만 뚜렷하게 생동한다. 메시지로 남는 것은 동양의 자연사상, 인간의 자연으로의 원초적인 귀소본능이다.

한봉덕화백은 평북 영변에서 태어나 4살때부터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 한학과 서예를 배웠다. 사서삼경과 육조단경 등 고전을 즐겨 읽었다. 10대 시절 늑막염으로 외삼촌이 주지로 있던 금강산 표훈사에 가 요양을 했던 기억이 늘 새롭다. 이때 금강산의 빼어난 절경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외경은 내내 그의 작품의 모티브가 된다. 특히 떼를 지어 나르는 군학(群鶴)의 모습은 그림의 주소재. 그의 그림에 즐겨 나오는 학, 즉 새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방향감각을 상실한 현대인에게 주는 메타포이다. 훨훨 날고 싶은 욕구, 갈등과 고뇌에서 탈출하고 싶은 인간의 잠재된 욕구를 잘 암시해 주는 상징이다. 청소년시절부터 밴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은 일생 그가 표현하는 그림의 메시지이며 누구나 그의 그림에서 발견하게 되는 '삶에의 경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이름자 '봉'은 원래 '새 봉(鳳)'이었는데 '받들 봉(奉)'으로 바뀐 것도 스님과 관련이 있다. 2살때 영변 천주사의 스님이 이름을 고쳐야 장수한다는 것과 그가 50세전에 큰 불사를 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지난 70년부터 72년에 걸쳐 서울 보문사에 석굴암을 조성했다.

경주 석굴암을 서울에 재현하겠다는 원력으로 시작한 불사는 화강석 2천톤 오석(烏石)1백톤, 동원석공만 연 4만2천여명 등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불사로 확대돼 극심한 자금난으로 무척 고생을 하였다.

"'한번 해보시지요'라는 주지스님의 간단한 말로 시작된 불사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불사라는 것이 정말 신심과 지중한 인연이 없으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불사를 하며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훌륭한 성보문화재들이 다 이렇게 피나는 고생을 하며 이룩해 놓은 것이겠구나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서체에서 원용한 '無' '佛心' '人' '無心' '禪' 등의 자를 형상화한 이미지회화를 즐겨 한 것도 그 이후다.

> "나에게는 캔버스가 도량입니다
> 캔버스앞에 앉으면
> 잡념은 사라지고 그린다는 일념만 남지요"

그는 50년대 조선일보 문화부기자로 있던 시절 '국전폐지론'을 제기하며 한국화단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는 유영국 김병기 이응로 이봉상 등과 같이 현대미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전에서 소외된 비구상 회화작가들을 모은 '현대작가초대전'을 열 차례나 기획하는등 현대미술운동의 기수가 됐다. 그후 20년이 지난 81년 국전이 폐지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앞서 갔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폐쇄적인 한국화단의 강압된 분위기는 그를 멀리 스웨덴으로 이주하게 한다. 72년 스웨덴에서의 초대전 성공으로 스웨덴으로 이주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개인전을 갖는등 세계적인 화가로서 명성을 쌓아가다 다시 지난 90년부터 한국에 되돌아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고국에 정착하며 하루 열몇시간씩 꼬박 매달려 완성한 것이 대작 '한라산'. 2천호 큰 화폭에 한라산의 4계를 반구상 형식으로 담았다.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다보니 더욱 동양의 정신이 큰 산처럼 뚜렷이 다가옵니다. 나이들수록 산 그 자체에 매료되고 신비와 자애, 부처님품과도 같은 넉넉함을 느낍니다. 내가 산을 즐겨 그리는 이유도 그것이죠."

한봉덕화백은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화력50여년을 조감하는 초대전을 성황리에 가졌다. 초대전을 준비하던 그는 지난 3월 위암선고를 받고 대수술을 했지만 끄덕도 않고 병고를 이겨내 오히려 창작에의 열정을 더욱 지펴가고 있다.

"모든 형상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대자유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 그림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제행무상의 진리를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요. 그림을 통해 매번 새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경숙 기자

##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 불법은 정말 어려운 것인지요

문 예불중에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란 말이 나옵니다. 불법은 그만큼 만나기 어렵고 이해하기에도 힘든 법이라는 뜻같은데요. 저희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기피력을 바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류원영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답 훌륭한 가르침은 대개가 다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설하신 것이라서 사람마다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요.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에도 정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도 진리를 일러줌이고 진리에는 학문과 달리 고하가 있지 않습니다.

세간의 가르침에는 어려운 것 쉬운 것이 있지만 불법은 어렵고 높직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바르고 현실적이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열려있다는 사실에서 귀한 것입니다.

또 불법의 진수를 만나기가 백천만겁에도 어렵다는 것은 희귀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에는 하고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출생지, 신분, 학력, 성격, 환경 등 천차만별이지요. 세간의 가르침도 초등학교의 셈본공부에서 과학자들의 고등수학에 이르기까지 수준차이가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공기는 차별이 없듯이 불법도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학문이 높은 사람만을 위해 법을 설하시지도 않았고 부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설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햇빛이 차별을 두지 않듯이, 공기가 무차별적이듯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을 알맞게 설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희심을 갖고 가르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아예 어렵다고 지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질문하신 것처럼 복이나 빌고말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언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법은 어려우니 잘 모르겠거든 열심히 빌기라도 하라'고 하셨던가요. 평생동안 그런 말씀하신 일 없고 오히려 이 법은 현실의 법이요 누구나 와서보라고 할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처사님은 어쩌시렵니까?

어렵다고 지례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복이라도 비시겠습니까? 그중 어느 쪽을 택하든 불자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왜냐? 세존께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불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열심히 실천하면 누구라도 불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기고 또 반겨야 합니다. 불자라면 이 점을 잊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 경전에 여성평하 내용이 있는데…

문 지금의 불교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전으로 이어오다가 나중에 엮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된 생각이오나 그래서 그런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전 구절을 근거로 여성을 심히 편하하는데 아무래도 잘못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지영 · 미 LA에서〉

답 부처님법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과거에 살던 것을 짊어진 채 오늘에 살고 있듯이 부처님법도 삼천년 전의 법만은 아닙니다. 삼천년 전이라하더라도 바로 지금이지요.

미래라 할지라도 미래란 따로 없고 바로 지금이지요. 그러므로 영원한 오늘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법도 오늘의 법이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삼천년 전에만 오신게 아니라 오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이 어느 때에 편집이 되었건간에 그 나름대로 정성을 다 기울여 진리를 담은 것이니 무어라 탓할 수는 없지요.

물론 아무리 완벽하게 편집이 되었다 할지라도 불법은 현실의 법이니 시대가 변천하는데 따라서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경전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부터 알아야만 고쳐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글씨를 쓰려면 종이가 있어야 하듯이 먼저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백지를 모르고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부터 알아라, 그래야 진리도 알고 작용도 아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어디가 잘못되었으니 내가 고쳐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으로서 백제를 모른다면 울바로 고치지도 못하겠지만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라고 할 수도 없지요.

고친다 안 고친다를 떠나 봄이오면 저로 싹이 터서 꽃이 핍니다.

여성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색신으로는 남녀의 구별이 있지만 마음에 무슨 성별이 있겠습니까?

부처님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는 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밝히는 일에 남여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을 두는 것,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세간법이거나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밝아 있습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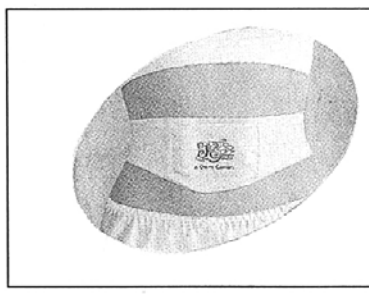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층5호)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교교린(원장 자광 스님)
● 부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마진/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02)597-7581
서울강북지회:(02)747-7033
부산지회:(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053)323-2598
대전지회:(042)222-4936
광주지회:(062)228-8544
제주지회:(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0596)73-0039
경남마산지회:(0551)23-9016
경남울산지회:(0522)74-7536
창원지회:(0551)62-0076
제천단양지회:(0443)46-3023
의정부지회:(0351)873-0532
청주지회:(0561)772-3255
강릉:(0391)645-211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7월 문화인물

# 도선국사

# 전국토 만다라화 … 국가안녕 기원

## 3천8백여 절·탑세워…신라말 부패·국민불안 해소책 불법서 찾아

### 827년 영암출생 15세 출가 화엄종서 수학

### 혜철선맥 계승 … '독특한 토지관' 큰 족적

## 불교에 풍수사상 융합한 선사

### 도선국사는 누구인가

오늘날 남아 있는 도선국사(827~898)에 관한 자료는 상당한 양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후세인들에 의해 많이 꾸며진 것이어서 사료적인 가치는 적은 것들이다. 그 중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최유청(崔惟淸)에 의해 찬술된 백계산옥룡사증시선각국사비명(白溪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선각국사비명 또는 도선본비·옥룡사 선각국사비로 불리기도 한다)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데다가 중구난방하게 퍼진 다른 자료와 달리 허구와 윤색이 가장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비석은 남아 있지 않고 단지 그 비문의 내용만이 '동문선'에 수록되어 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선본비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2년(827)에 태어난 도선국사의 세속의 성씨는 김(金)씨이며 영암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도갑사의 비석글에는 최씨로 기록돼 있는 등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왕가의 후예라는 설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생애** 도선본비는 유년시절 불교 집안에서 자란 도선스님이 15세에 월유산 화엄사에서 출가해 불경을 공부하였는데 일년도 못돼 뜻을 통달하여 문수와 보현보살의 미묘한 지혜를 깊이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수와 보현보살이 화엄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양 대 보살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 신라 중기 교종의 대표적 종파였던 화엄종으로 출발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20세 되던 해 화엄종의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교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학으로 개종해 동리산의 개산조 혜철의 문하에서 선(禪)을 배웠다. 이념적 자각도 자각이지만 교학의 모순이 대한 반성이 당시의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다.

이후 23세에 천도사(穿道寺)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15년간을 운수납자로서 수행과 대중구원의 공력에 힘쓰는 한편 세상을 구제할 방도찾기에 골몰한다. 도선국사가 다시 동리산을 찾아 온 때는 37세. 이때부터 72세로 입적할 때까지 옥룡사에 주석하며 혜철선사의 뒤를 이어 동리산문의 법맥을 지킨다.

**행장** 도선스님은 동리산의 법맥을 잇는 등 스님의 깊은 신앙의 근본은 깨달음을 중시한 선(禪)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한편으론 선승이라기 보다는 풍수지리의 대가라거나 우리나라 도참사상의 비조(鼻祖)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도선스님은 선종으로 개종후 3년간 공부에 몰두하다 구족계를 받은 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수행과 풍수지리설의 이론과 실제를 대조하면서 이를 익힌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운봉산에서 굴을 파고 수도하기도 했으며 태백산에 움막을 치고 여름 한철을 보내기도 하는 등 두타행(頭陀行·청빈하여 小欲知足의 생활을 하는 수도승)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 옥룡사에 자리를 잡고 후학들을 지도했는데 언제나 수백명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스님의 명망을 전해들은 헌강왕은 궁궐로 초빙해 법문을 들었다고 한다. 스님이 입적하자 효공왕은 요공선사(了空禪師)라는 시호를 내렸고 제자들이 옥룡사에 징성혜등탑(澄聖慧燈塔)을 세웠다. 고려의 숙종은 대선사(大禪師)를 추증하고 왕사(王師)를 추가했으며, 인종은 선각국사(先覺國師)로 추봉(追封)했다.

**끼친 영향** 도선스님의 사상은 스님 입적후 고려에 전해지면서 정치를 비롯 일반 대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풍수사상은 일반백성과 떨래야 뗄 수 없는 민간신앙으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선스님의 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도선스님과 풍수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오늘날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려시대 유행했던 비기류(秘記類) 가운데 도선스님의 저술로 전해오는 것만 해도 '도선기(道詵記)' 등 많은 수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그 저술의 진위를 떠나 고려시대에 미친 영향을 짐작케 한다.

최창조씨(전 서울대 교수)는 특히 한국 풍수에 미친 도선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며 풍수사상은 우리 민족의 거의 유일한 지리사상 내지는 토지관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



◇1805년 화사 도일스님에 의해 중수된 도선국사 진영. 선암사 소장.

### 비보사탑사상(裨補寺塔思想)

도선스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보사탑(裨補寺塔)사상이다. 물론 교종에서 선종으로 개종한 이유와 풍수설을 어떤 경위로 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비보사탑사상은 전체 국토를 하나의 만다라(曼荼羅)로 보고 위치나 방위, 또는 山川의 지세에 따라 알맞은 곳을 택하여 3천8백의 절(寺)·탑(塔)·불(佛)·부도(浮圖)를 세우고 그곳에서 여러 보살에게 기원함으로써 기본佛인 대일여래(大日如來)와 그밖에 여러 보살의 보살핌을 얻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재난을 소멸하고, 복리(福利)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도선스님은 비보사탑사상에 의해 백운산 내원사, 삼성산 삼막사, 조계산 선암사, 지리산 영악사, 치악산 구룡사, 운주사 등 전국에 걸쳐 많은 사찰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비보사탑설이 확산되면서 전체 사원의 비보화가 전개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도선본비와 옥룡사의 비문에는 옥룡사를 포함해 7~8개의 사찰만이 기록돼 있다.

비보사탑사상과 관련해서 풍수지리나 도참학에 의한 것이 아닌 밀교사상의 법용에 따른 불교적 사상이라는 견해와 불교의 국교적(國敎的)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도참적 호국원리라는 등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산천지세 다스리는 위민·호국원리

산천(山川)의 배역(背逆)에 의한 민심의 혼란을 사탑의 건립으로 다스린다는 원리로 사탑비보가 지맥에 흐르는 기운을 다스리는지, 아니면 불법에 의해 흩어진 민심을 왕업·왕실에 모으게 하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도선스님이 선종으로 개종한 이유로는 화엄종이 관념적 도답성에 빠진 채 위정자와 기득층의 전유물로 전락해가자 이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는 점과 지방민과 호족들 사이에서 선종이 정신적 축이 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또 당시 국가 사회적으로 격변기였던 시대상황에서 신라의 해체를 예견했던 스님은 풍수지리설을 통해 암울한 시대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라왕실의 무력화와 아울러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와 아울러 경주 중앙의 퇴폐적인 문화에 반발해 지방에서 건실한 기풍의 새로운 문화가 성장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투철한 인식에서 국토재계획안(國土再計劃案)적인 풍수지리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선스님이 풍수설을 누구에게 전수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 일행(一行)스님에게 배웠다는 설과 지리산 어느 자락에서 이인(異人)에게 배웠다는 설이 있으나 일행스님(683~727)의 생몰연대로 보나 당시 상황으로 미뤄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 '도참승' 인식 허물고 '선승' 평가돼야

### 학계 연구현황과 과제

비보사탑설(裨補寺塔設)을 비롯한 도선스님의 풍수사상이 어떻게 어떤 연유로 펼쳐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참승으로 더 알려져 온 도선스님에 대한 위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최병헌교수(서울대 국사학과)는 도선스님은 선승(禪僧)이며, 이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처음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 주장한다. 지금까지 참승(讖僧)으로 비하된 주된 이유로 고려와 조선시대 풍수가들과 지방 호족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선스님을 끌어들였고 고려 태조 왕건조차도 불교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도선스님과 풍수설을 연관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물론 도선스님이 풍수에 조예가 깊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선승들의 대부분이 풍수지리를 습득하는 사회 풍조가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지금처럼 죽은 사람들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음기풍수가 아닌 사찰과 산 사람들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기풍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선스님을 참승으로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 역시 도선스님은 고려불교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훌륭한 선승이라면서 참승으로 비하된 연유 역시 후대 풍수사상가들에 의해서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비보사상은 철저한 불교사상이며, 선승으로서의 도선스님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상적, 불교적, 시대적 연구가 면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 '양수풍수' 통해 민중구제 정치이념 제시

### 사료·시대상황등 종합분석 위상정립 필요

양은용교수(원광대)는 도선스님이 훌륭한 선승임은 분명하나 도참승이라는 또다른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교수는 우선 비보사상은 고려시대 도참사상이 불교와 더불어 확산되는 가운데 정리된 일련의 '호국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의 도참은 일반이 생각하는 미신차원이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비보사탑 또한 도참적 요소는 있으나 여말선초 유학이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할 때 불교를 굳게 지키고, 민중교화와 국익을 위해 펼친 위민사상(爲民思想)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까지해 온 도선스님에 관한 연구는 초보수준으로 더욱 정확한 사료조사와 검증 및 비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해석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토대로 도선스님이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시대를 구원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기 위해 민의를 어떻게 수렴했으며 정치지도자들에게 어떤 구제이념을 제시했는가를 파악하는 등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의 비보사상과 도참사상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도선스님의 분명한 위상을 찾는 것이 향후 도선 연구의 올바른 방향임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6학년도 동산 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9기생을 모집함.

2.교과목 및 강사

| | | |
|---|---|---|
|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 종범스님(승가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이만(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박종(인성개발원장) |
|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 정락스님(전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인환스님(동국대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성본스님(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한정섭(상락향원장) |

3.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 고 |
|---|---|---|---|---|---|---|
| 정규반(100명) 통신반( 50명) |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1996년 7월1일~7월31일 원하금 150,000원 (교재제공)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

4.개강일시 1996년 8월3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732-1206~8, FAX:732-1207)
(〒 11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문서점(257-0161)
◎광주 : 금강불교백화점(671-0451)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동산불교대학

지리산 반야봉 묘향대 복원불사 모연

◉ 최고가 되고자 하십니까?
◉ 최고가 될 인연을 맺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해발 1600m의
◉ 묘향암 복원 불사의 마당으로
여러 불자님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 최고 높은 곳에 항상 밝은 지혜의 등불을
켜 놓지 않으시렵니까.

불사할 내용

■ 대 불 ■ 탱 화
■ 대들보 ■ 서까래
■ 부 연 ■ 운송비(헬기)
■ 석 재 ■ 10년등

※ 상기 중에서 불자님들의 의중에 있는 불사를 선택하여 주시면 합니다.
회향식 때 헬기 수송 예정(전화요망시)

불기 2540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종열 입장
반야봉묘향암 암주 명철

문의처 및 온라인
문의처 ☎(휴대폰) 011-628-0055
☎(0664) 782-0055
우체국 500199-0055930 이완기
농 협 625-02-189313 이완기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비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주,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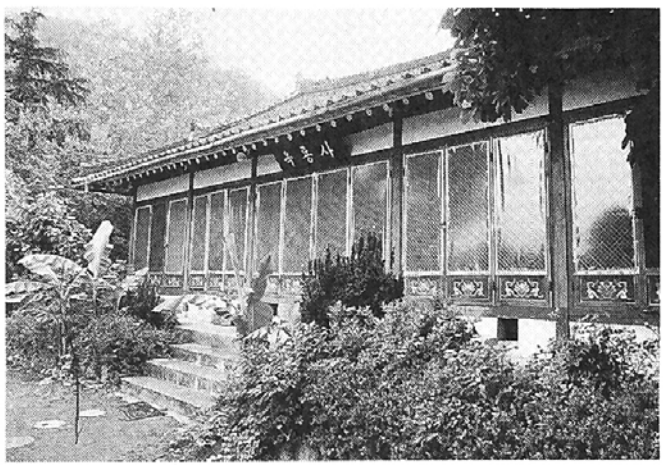
# 고향은 자취도 없고 천년전설만 남아

## 도선국사 탄생·열반지 현장기행

신라말 불교계의 거목이었던 도선스님(827~898)의 법력은 세월의 간격과 상관 없이 한반도 전역에 스며 있다. 그러나 도선국사의 출생지와 생애의 절반 이상을 보내며 후학을 지도하다 입적한 도량에서는 도선스님을 기념할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천년전에 천년후를 걱정했던 도인, 1996년 7월은 나라에 의해 '도선의 달'로 지정됐지만 스님의 출생지인 전남 영암군 근서면 동구림리에는 도선이 없었다.

스님이 태어난 곳은 공교롭게도 그보다 5백여년 앞에 태어난 백제인 왕인(王仁)과 같은 곳이다. 일본에 반도의 문물을 전해준 왕인박사의 유업을 기리는 '왕인박사유적지'가 20년전에 조성돼 있을뿐 그곳이 도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흔적은 전혀 없다. 유적지에서 1㎞ 가량 떨어진 구림마을에


◇도선국사가 35년간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했던 광양 옥룡사터에 세워진 법당.


◇도선의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도선을 버렸으나 비둘기가 보호해 주었다는 전설속의 국사바위(영암 구림리).

낭주최씨의 사당이 있고 그 뒷편에 도선의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 내버렸는데 비둘기들이 그 아기를 키웠다는 전설의 바위 국사암이 있다.

"아이를 내버렸는데 날짐승들이 키우고 있응께 희한허고 무서워서 다시 데불고가 키웠는디 그게 도선국사라는 것이여." 국사암 곁에 사는 주민은 "도선스님이 우리마실 태생인디 아무 징표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소를 여는데 성역화 불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도선스님의 사적비도 세울 계획이다. 도갑사에는 현재 국사전에 도선스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도선 수미비에 스님의 행업이 기록돼 있다.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전남도 기념물인 동백림 가운데 위치한 옥룡사. 40평이 조금 넘는 현재의 옥룡사 건물은 25년전에 지어졌다. 18년전에 옥룡사를 인수받은 종견스님이 조석예불을 모시며

절을 지키고 있다.

"광양시에서 옥룡사 주변을 발굴 조사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일차 작업이 시작된다더군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건물이 헐리게 됩니다. 발굴작업과 복원 사업을 시가 주도하는 것이니 잘 된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종견스님은 옥룡사 능선 뒤편에 도선스님 창건 사찰이었던 운암사지를 복원하는 대규모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에서 벌교 방향으로 가다보면 상사면의 운동산을 만난다. 산의 중마루에 도선암(주지 승조)이 자리잡고 있다. 도선암 아랫마을에는 '도선국사 모친의 묘'로 오래동안 전해져 온 묘가 있다. '벌초를 하면 복이 온다'는 설이 있어 풀이 자랄 틈이 없었다지만 현재는 도굴의 흔적이 역력하고 소나무와 떡갈나무가 무성해 묘인지조차 모를 정도다.

도선암 주지 승조스님은 "도선국사가 옥룡사에 들어가기전 모친을 모시고 이곳에서 보임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지만 묘와 관련된 내용은 전설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산의 주인과 협의해 묘를 새로 조성하고 매년 제사를 지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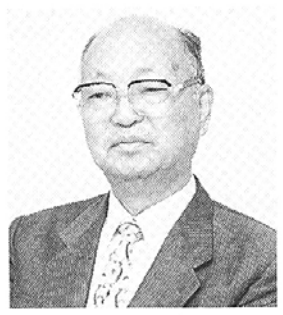
글=임연태 사진=고영배

## 이웃 도갑사서 기념관·사적비등 성역화 준비

도선스님의 출생지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도선스님 창건 사찰인 월출산 도갑사에서는 그간 왜곡되고 비하된 도선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바로잡기 위한 불사가 준비되고 있다. 도갑사 주지 도현스님은 최근 〈도갑사 사적기〉와 〈도선실록〉을 찾았다. 16세기 중반에 기록된 사적기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2백50여년전에 쓰여진 실록은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관에서 각각 찾아내 전남대 고문화도서관 박완식관장에게 번역을 의뢰 최근 번역을마친 것. 도현스님은 이 두 사료를 도선의 달을 맞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목포대 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도갑사 주변 발굴 작업도 계속 추진하고 오백나한전을 세워 국태민안 기도도량으로 삼을 방침이다. 지난 20일 단오를 맞아 처음으로 영암군과 함께 도선스님 제사를 지낸 도현스님은 도갑사에 도선스님기념관을 세우고 도선사상연구

### 인터뷰 도선국사 국제학술회의 준비 김지견 박사

## "풍수는 여업 본업은 연좌망언"



"도선의 법손 지문(志文)이 말했듯이 도선이 운수행각을 마치고 백계산 옥룡사에 주석한 뒤로 연좌망언삼십오년(宴坐忘言三十五年), 즉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말을 잊은 지가 35년이나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선사로서의 도선스님의 참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7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도선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 전남 광주시에서 열리는 '도선의 재조명' 주제 국제불교학술회의를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주최하는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김지견교수(65·정신문화연구원)는 '풍수가 도선의 여업(餘業)이라면 본업은 연좌망언'이었다고 말한다.

수년 전 '사문 도선상 소묘(沙門 道詵像 素描)'라는 글을 쓰면서부터 도선 관계 논문들과 자료를 틈틈이 연구해 온 김교수는 최근 몇년간 새로운 자료가 발견돼 도선의 스승인 동리산 개산조 혜철(惠哲)스님과 중국 지장스님의 법맥이 신라승 무상(無相)으로 이어지는 관계문헌이 고증돼 신라 선종사상 법맥이 확실해 짐으로써, 종래 추측에 지나지 않던 도선스님의 참 면모가 점점 드러나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부가 마땅히 진리까지도 초탈해서 자정할 것이어늘 어찌 올올이 문자에 사로잡혀 있으랴" 하는 것이 도선의 선풍(禪風)이었다는 것. 〈재〉

### 관련행사 31일 국제학술회의서 도선사상 재조명

**학술행사**

◇제12회 국제불교학술회의(주최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주제: 道詵의 재조명

▲일시 및 장소: 96.7.31 (전남 광주시 남도예술회관)

▲발표주제 및 발표자: 고려중기 사성(四聖)과 선각국사비의 의의(허흥식). 선각국사 도선 연구-도선비문 제고찰-(정성본). 고려태조의 정치이념과 도선의 도참사상(최병헌). 당승(唐僧) 일행(一行)의 사상과 도선(황심천·中사회과학원). 운거도응문하(雲居道應門下)의 신라승과 그 영향(한기두). 도선의 법계-혜철, 도선 그리고 경보(鏡甫茂雄·日동경대). 도선의 비보사탑설과 그 영향(양은용). 갱연실록과 관련하여(김정호). 최유청본비고(崔惟淸本碑考)(백운스님). 한국 풍수지리설의 구조와 원리(최창조). 도선의 사문상(沙門像)(김지견). 도선관계 문화유적(성춘경). 도선의 쓰지 않는 사상(김용구)

◇학술강연회

▲주제: 도선의 생애

▲일시 및 장소: 96.7.5. 13:00 (전남 영암문예회관)

▲발표자: 김지견박사(정신문화연구원), 손석우(육관도사), 도형스님(대흥사)

**전시회**

◇'도선' 관련자료 전시회

▲기간: 96.7.1~7.31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

▲전시자료: 도선스님관련 책자 및 사진 등

**방송**

◇다큐멘터리

▲주최: KBS1 라디오(문화살롱)

▲일시: 96.7.1. 오후 10:05~11:00

▲내용: 도선스님의 생애 및 업적

◇연속 기획

▲주최: EBS TV

▲일시: 96.7.1~7.6 오후 10:05~10:10

▲내용: 도선스님관련 자료 화면으로 구성

## 나의 수행일기

정운복 〈조각가〉



10여년전 후배의 작업실에 가서 나는 목각으로 조성된 부처님 고행상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세상에 저런 부처님상도 있구나'라는 생소함에 '늘 보아 오던 온화한 부처님상이 아닌 저런 고행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의구심까지 합쳐져 머릿속이 혼돈스러웠던 것이다.

양상하게 드러난 뼈와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의 조화, 그것은 내게 어떤 화두라도 던져 주는 것만 같았다. 나도 인연이 닿으면 저런 부처님을 조성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런 인연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생활기록부 종교란에 꼭 불교라고 써 왔다. 어머님이 열심으로 절에 다니시니까 나는 절에 한번 가본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써 온 것이다. 성인이되고 조각일을 하면서도 그저 마음속으로 '나는 불교신자다'란 생각만 가졌지 일부러 절을 찾아 기도하거나 가족의 회원들과 어울리며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생활을 하게 된것은 미래의 나를 부처님께 다가다도록 하는 일이란 가르침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절에 있든 작업장에 있든 나는 부처님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해 한다.

그런 가운데 나는 오래전에 보았던 부처님 고행상을 다시 머리에 떠 올리게 됐다. 그러나 선뜻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다. 아직 인연이 아닌 탓이려니 여기며 머릿속에서만 고행상을 다듬고 있을때 오대산 북대 화광스님으로부터 "6년고행상을 모시고 싶으니 한번 조성해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스님의 제안은 내게 힘을 주었다. 그간

## 실패끝에 부처님 고행상 완성

### 새벽기도 올리고 조각칼 잡으면 마음 평안



복을 비는 축원카드 한장 등록하지 않으며 지내왔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인가. 내게도 불교신행 활동을 할 기회가 왔다. 주변의 인연으로 인해 나는 보리방송 모니터회 강원도지부에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모임을 통해 나는 기초교리도 배우고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정기적으로 성지순례도 하게 됐다. 처음에 나를 기쁘게 했던 가르침은 '인간 몸 받기 어렵고 남자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육신이 온전한데다 조각일을 하는 재주(하찮은 재주일 뿐이지만)까지 타고나 부처님상을 조각하고 싶은 마음까지 내게 됐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메스컴들을 접하면서 불교를 왜곡시키거나 비하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좀더 공부해야 한다는 의욕을 갖게 되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정말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거듭하게 됐다. 아마 어린시절 내가 불교라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긴 인연의 한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싶다.

불교신행도 해왔고 여러 절을 다니며 부처님께 기도도 했으니 이제 나의 재주로 부처님의 고행상을 조성해 보자는 생각이 용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 그렸던 부처님, 고행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온갖 번뇌와 고통을 초월 하는 힘을 표현하고 싶었다. 고행상이되 고행을 뛰어넘는 상호를 조성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마음 속의 부처님은 내 조각칼 끝으로 나투시지 않았다. 나는 실망했다. 화광스님이 용기를 새로 불어넣어 주셨다. "잘 하려는 마음이 너무 컸나 봅니다.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해 봅시다" 나는 비로소 알게 됐다. 욕심이 첫 작품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고 그 실패는 부처님의 말 없는 가르침이었음을. 나는 다시 마음을 추스려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고 조각칼을 잡았다. 잘 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처님 고행상도 형상을 이뤄가고 있었다. 지난 봄 북대에 고행상을 모시는 날에 나는 내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의 마음이 원만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작품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 제3회 연꽃 어린이 여름캠프

건강이 넘치는 계절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새싹불자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부처님 말씀도 듣고 인성도 개발할 수 있는 여름캠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알차고 재미있고 보람있게 보내는 여름방학을 책임집니다. 특히 "부처님 품안에서 스님과 법사님이 진행하고 불자들만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대합니다!

- 때 : 2540년 7월 23일(화)~25일(목) 2박3일
- 곳 : 청평 풍림 후렌드리 콘도
- 누가 : 초등학교 1~6년
- 낼돈 : 5만원(2박, 6식, 간식, 기념품 포함, 교통비 별도)
- 캠프 활동 내용 : 아름다운 이야기(스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우리가 만드는 부처님 나라(협동 작품 만들기), 선재동자를 찾아서(지도를 보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추적놀이), 수영교실(수영강습, 잠수대회, 수구대회), 캠프화이어(장기자랑, 불꽃놀이, 특수효과), 레고 놀이, 해적선 놀이, 암벽타기, 마운틴벌룬, 스라이드풀, 어린이 디스코, 어린이 기네스 대회
- 준비물 : 첫날 도시락/슬리퍼/세면도구/수영복/수영모자
- 문 의 : 연꽃캠프 진행본부 (02)738-7860, 935-4967

■ 주최 : 불교 텔레비전
■ 주관 : 불교 레크리에이션 포교회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포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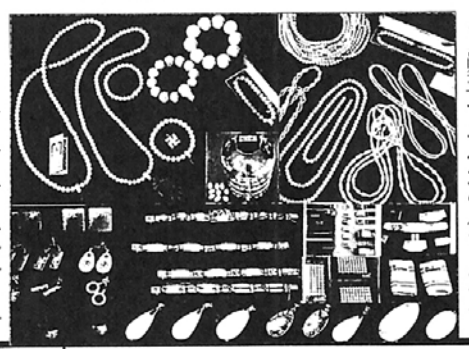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인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혈압 84%, 온몸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 상상의 데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한 과학자의 관념능력을 넘어선 현,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 자연 산삼

천종(자연산) 산삼을 채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배산삼이 난무하는 현 상황속에서도 천연 산삼만을 고집하는 심마니동우회 입니다.
그러던중 하늘의 은혜로 천종 산삼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산삼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는 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장뇌 산삼도 공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심마니 동우회
전화 : 842-0094

## 다시 푸는 경서

###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③

憶此一心 本來是佛 直下無事 各各具足
료차일심 본래시불 직하무사 각각현성
說修說證 都是魔話
설수설증 도시마화
達磨東來 直指人心 見性成佛
달마동래 직지인심 견성성불
明明白白指示 大地一切衆生都是佛
명명백백지시 대지일체중생도시불
直下認得 此淸淨自性 隨順無染
직하인득 차청정자성 수순무염

한마음 밝히면 본래가 부처요 바로 할 일이 없고 두두물물이 그대로 드러나니 수행을 말하고 증득을 설함이 도시 마구니의 말이다라고 한다.

달마조사께서 동쪽으로 건너와서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참성품을 보고 성불한다고 명명백백히 보이셨으니 산하대지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라

당장에 이를 증득하면 이 청정한 자성은 경계를 따르더라도 물들지 않으며

二六時中 行住坐臥 心都無異
이육시중 행주좌와 심도무이
就是現成的佛 不須用心用力
취시현성적불 불수용심용력
更不要有作有爲 不勞纖毫言說思惟
경불요유작유위 불로섬호언설사유

하루종일 행주좌와 중에도 마음은 늘 여여하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드러난 부처이니 모름지기 용심이다, 용력이다 할 것도 없고,

다시금 짓느니 하느니할 필요도 없으며 털끝만큼의 언설이나 사유에도 힘쓸 필요가 없다.

이렇기에 부처되기란 가장 쉬운 일이요 가장 자재로운 일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내게 있는 나의 일이지 밖에서 구할 게 아니다.

大地一切衆生 不甘長劫輪轉
대지일체중생 불감장겁륜전
于四生六道 永沈苦海
우사생육도 영침고해
而願成佛 常樂我淨
이원성불 상락아정
諦信佛祖誠言 放下一切
체신불조성언 방하일체
善惡都莫思量 箇箇可以立地成佛
선악도막사량 개개가이입지성불

대지의 일체중생이 수억겁 오랜 세월에 걸쳐 윤회하길 좋아하지 않고

사생육도를 돌며 길이 고해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여 부처를 이뤄 무애자재한 경지에 들기를 원하나니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진실된 말씀을 올곧게 믿어 일체를 몰락 놓고

선악을 도무지 사량치 않으면 누구나 제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

諸佛菩薩及歷代祖師 發願度盡一切衆生
제불보살급역대조사 발원도진일체중생
不是無憑無據 空發大願 空講大話的
불시무빙무거 공발대원 공강대화적
上來所說 法爾如此 且經佛祖反覆闡明
상래소설 법이여차 차경불조반복천명
叮嚀囑咐 眞語實語 并無絲毫虛妄
정녕촉부 진어실어 병무사호허광
無奈大地一切衆生 從無量劫來
무나대지일체중생 종무량겁래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께서 일체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발원하였으니

이는 근거없는게 아니라 공연히 대원을 세웠으며 괜스레 큰소리를 쳤겠는가.

이상과 같이 설한 바, 법이 으레히 그런 것이요 부처 조사께서 거듭거듭 천명하시어 정녕 부촉하신 참 말씀엔 실터럭만큼의 허황과 거짓이 없다.

어쩔거나, 대지 일체중생이 무량겁을 따라오면서

迷淪生死苦海 頭出頭沒 輪轉不已
미륜생사고해 두출두몰 윤전불이
迷惑顚倒 背覺合塵 猶如精金投入糞坑
미혹전도 배각합진 유여정금투입분갱
不惟不得受用 而且染汚不堪
불유부득수용 이차염오불감
佛以大慈悲 不得已說出八萬四千法門
불이대자비 부득이설출팔만사천법문
俾各色各樣 根器不同的衆生 用來對治
비각색각양 근기부동적중생 용래대치

어리석게 생사고해에 빠져 들락날락 바퀴돌이를 그치지 않으니

미혹하여 뒤집힌 생각을 하고 깨달음은 커녕 속진과 하나되매 오히려 순금이 똥통에 빠진 것과 같다.

(그렇다고 순금을)사용하지 못한다 할것은 아니지만 그 더러움을 감당키 어렵구나.

부처님이 대자대비로써 부득이 팔만사천법문을 설하시어 각양각색으로 근기가 같지 않은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 치료하시고자 하심이니 **龍眼**

## 선악을 사량치 않으면 누구나 성불
## 팔만사천 법문 근기따라 중생 치료

所以說成佛 是最容易的事 最自在的事
소이설성불 시최용이적사 최자재적사
而且操之在我 不假求外
이차조지재아 불가구외

迷淪生死苦海 頭出頭沒 輪轉不已
미륜생사고해 두출두몰 윤전불이
迷惑顚倒 背覺合塵 猶如精金投入糞坑
미혹전도 배각합진 유여정금투입분갱
不惟不得受用 而且染汚不堪
불유부득수용 이차염오불감
佛以大慈悲 不得已說出八萬四千法門
불이대자비 부득이설출팔만사천법문
俾各色各樣 根器不同的衆生 用來對治
비각색각양 근기부동적중생 용래대치

어리석게 생사고해에 빠져 들락날락 바퀴돌이를 그치지 않으니

미혹하여 뒤집힌 생각을 하고 깨달음은 커녕 속진과 하나되매 오히려 순금이 똥통에 빠진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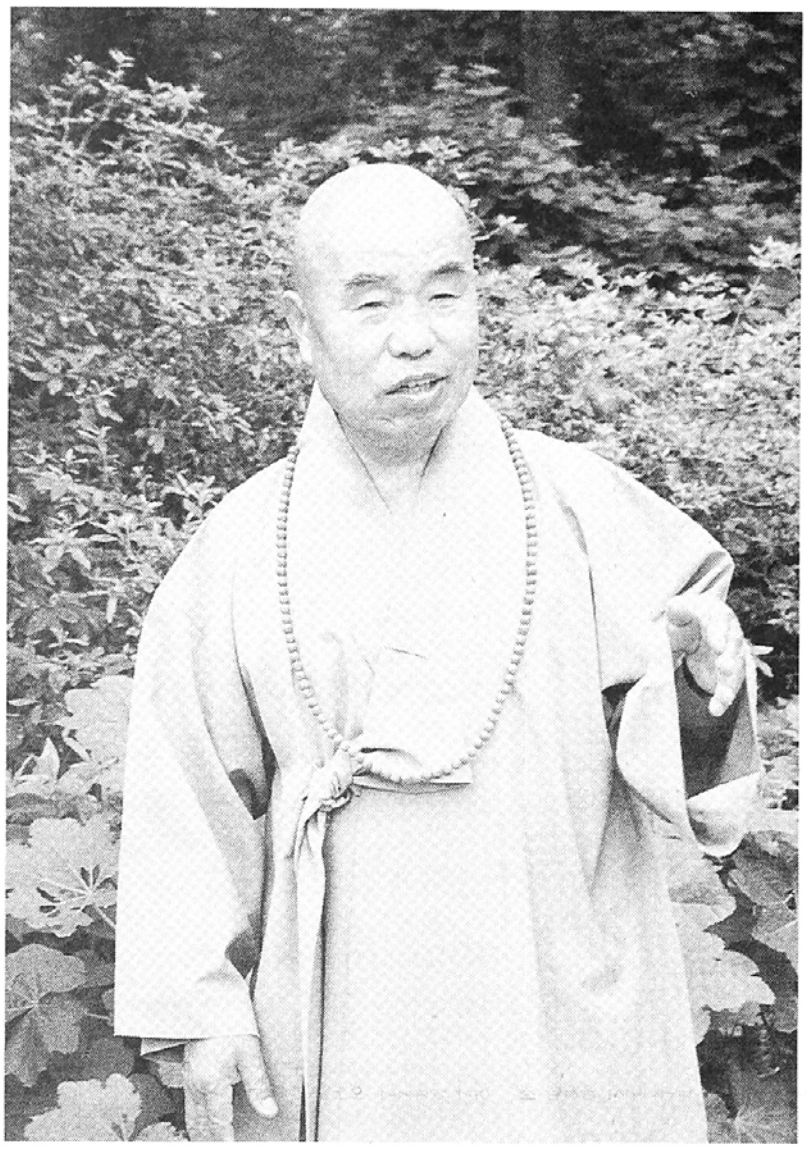
(그렇다고 순금을)사용하지 못한다 할것은 아니지만 그 더러움을 감당키 어렵구나.

부처님이 대자대비로써 부득이 팔만사천법문을 설하시어 각양각색으로 근기가 같지 않은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 치료하시고자 하심이니 **龍眼**

## 지상법석

# 계율은 잡념망상

## 도견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악력**
- 1925년 강화 生
- 1944년 지월스님은사로 득도
-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역임
- 해인사 주지 역임
- 대흥사 조실(現)
- 해인사 율원 주석

불법은 부처님이 설하신대로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닦아 무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먼저 계를 철저히 수지하여야 합니다. 조금 견처가 열렸다고 무애행을 하는 납자들이 있습니다만 계율을 잘몰라서 하는 소치입니다. 불교가 계행을 안지키면 불교는 곧 망해요. 설사 깨침이 깊어서 계에 걸림이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계율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도가 깊을수록 중생의 사표가 되어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以戒爲師)고 당부하셨어요. 이는 열반하실 때 남기신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고 정진하라(自燈明 法燈明)'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릇 모든 여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이 있어 제자들이 실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율을 받아지님으로써 수행하는데 있어 게으름과 잡념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겁니다. 계를 수지하여 마음을 거둠으로써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세가지 무루학(無漏學)이라 합니다.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공부입니다. 불법은 계율의 기초위에 세워집니다. 계율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불법이 알맹

**불법이 알맹이라면**
**계율은 담는 그릇**
**계율 안지키면**
**영원한 중생자리**

이라면 계율은 이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불법은 반드시 계율이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존재의미를 갖습니다. 계율은 불법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수행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근본 4계는 불음행·불살생·불투도·불망어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술을 팔지말라는 계가 추가되어 5계가 되지요. 음욕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수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불음행입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음욕이 들만 돼도 출가하여 도를 이룰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겠어요?

옛날 해인사에는 어깨를 드러낸 여자들은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세상이 하도 혼탁해지다 보니 요새는 허벅다리를 내놓고도 버젓이 들어와요. 스님들이 자꾸 보고 듣고 하다보면 헷갈려서 좋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말법시대에는 "보살은 공(空)을 깨달았으므로 계율을 초월해 있으며 계행을 수지하는 것은 소승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난립할것인바 이를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녹여서 초월하지 않고 선정을 닦는 이는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을려는것과 같아서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일것이니 아무리 묘하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모두 음욕의 근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이란게 본래 그 업으로 태어난 것이어서 음행의 습을 녹인다는게 보통의 결단으로는 어렵습니다. 흔히 단식을 한다든지 일종식을 한다든지 하는것도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줄여서 음심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습니다. 음욕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더 불타오르고 멀리 할수록 약해지는게 음욕입니다. 본래의 완전한 인간은 그릇된 음욕으로부터 초월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이러한 믿음위에서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차츰 음욕을 초월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참는데 비중을 두기보다 건전한 생각과 생활을 지향해야합니다. 수행정진의 밀도와 강도를 높임으로서 자연스레 극복되도록 하세요. 억지로 참고 부정하면 그만큼의 반작용이 있어서 무척 고통스럽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몸뚱이만 벗어버리면 되지만 여성에게 물리면 세세생생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어 그것이 나의 본성임을 아는 것이 성불입니다. 그러나 그 묻힌 본성은 바위덩이 같이 무거운 것이어서 쉽게 들어 올릴 수 없죠. 그 무거운 바위덩이를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바로 계율입니다.

계를 수지한 다음에는 선정을 닦아야 해요. 견처는 말로새는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연못의 물을 먹음에 차고 더운 것을 고기가 알지 아무리 차다고 한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맛을 알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란 몰랐던 것을 비로소 알게되는 것이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의증이 골똘해야 해요. 의증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해서는 무기공(無記空)에 떨어집니다. 옛날 중국의 어떤 산이 뚝 떨어져 나간 자리에 큰 항아리가 하나 있어 깨뜨려보니 살아있는 사람이 한명 나왔습니다. 대도인이 나왔다고 해서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국왕의 명령으로 왕궁에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했어요. 하루 3끼 공양을 궁녀가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음욕의 업은 그대고 남아 있었던게지요. 이처럼 공에 떨어진 자는 몇만년이 지나도 깨달음은 커녕 그대로 있습니다. 업


일붕 서경보 큰스님 입적
생신날과 계삿날이 같게 입적하신 (생신 음 5월 9일 , 입적 음 5월 10일 ) 일붕 서경보큰스님

올해 입적하실 것을 예언
병자 원단에 지안스님과 선문답에서

『일붕 : 빨래나 하려나.』
『지인 : 봉화대에 불 지필까요.』
『일붕 : 그러 · · · · 그럴거야.』

화제의책

최초로 공개하는 생전에 제자와 선문답의 내용이 담긴책

해는 왜! 서쪽에서 떠서 꼭! 동쪽으로 지나

출판사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



해는 왜! 서쪽에서 떠서 꼭! 동쪽으로 지나 ▼ 값7,000원



도서출판 무심 글쓴이 유용주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9-8 임진각빌딩 3층 전화 : 02)416-2324 팩스 : 02)417-7781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 = 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 =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 = 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 = 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경전강독 = 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 = 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 = 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 장 金 月 雲

지상법석

# 게으름 건지는 지렛대

## "계를 수지하여 마음 닦음으로 선정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 드러납니다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삼학입니다"

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된 까닭은 마음에 의증이 없었기 때문이예요.

가끔 나를 찾아와서 화두를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삭발염의 하려는 자이면 몰라도 잘 안줍니다. 화두는 마음을 주는 것이지 이름을 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냥 대충 주는 화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는 자와 받는자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됩니다. 불조의 종지는 불립문자요 직지인심이라 했는바 말로써 쉽게 전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특히 중생의 업이란게 워낙 무서운 것이어서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내 상좌가 열댓명되는데 그중 네명은 환속을 하고 둘은 대처승으로 가버렸습니다. 남녀이성관계가 참 무서운것입니다. 이 몸뚱이 자체가 그 업으로 인해 태어 났기에 참 무서워요. 다겁생을 두고 쌓은 습관이어서 좀처럼 초월하기가 힘듭니다. 함부로 큰소리 탕탕 칠게 아네요. 큰스님 큰스님해도 화장터의 나무 더미위에 올라가 봐야 압니다.

어쨌든 꾸준히 찾고 구하다보면 그에 알맞는 공부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한눈 팔지말고 열심히 정진하다보면 어느 모퉁이에 가서는 의증이 착실해지는 때가 옵니다. 제가 범어사에서 한철을 지낸적이 있는데 그때는 공부가 어찌나 잘되던지 시간가는 줄 몰랐어요. 다들 해제를 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도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당시 일타스님이 범어사에 계셨는데 도견수좌는 선열미(禪悅味)를 맛봤다면서 어찌나 말씀하시던지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가 이처럼 힘이 듭니다만 재가자도 충분히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설거사 얘기가 있어요. 스님세분이 금강산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날이 저물어 신도집에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그집에는 과년한 벙어리 딸이 한명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더니 아버지한테 "저스님하고 부부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20살이 되도록 말한마디 못하던 벙어리가 처음으로 말을 한다는게 스님한테 시집가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도 기가막혀 야단을 치니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해요. 하는수가 없어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 스님도 느낀바가 있었던지 허락을 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스님은 재가거사가 되고 두 스님은 공부길을 떠났겠지요. 10년이 지나서 두스님이 다시 지나가다가 그집을 들렀습니다. 부인에게 거사의 안부를 물으니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무슨 병이냐고 물으니 생사병(生死病)이라고 해요. 어쨌든 세분이 10년만에 다시 만나 법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사가 두스님의 공부를 시험하기위해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호로병에다 물을 넣어서 천장에다 3개를 매단 다음 그것을 깨트려 보니 벙어리와 부부가 된 부설거사의 것은 병만 깨지고 물은 그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거예요. 두스님의 것은 병이 깨지니까 물이 다 흘러 내려요. 부설거사는 음양의 이치에 전혀 끄달림이 없이 공부를 한것입니다. 부부가 다 대도인입니다. 슬하에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는데 이들도 다 도인이었습니다. 오빠는 등운조사가 되고 동생은 월명각시가 됐어요.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월명암이란 절이 있습니다. 따님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부설거사는 몸을 벗을때도 물구나무 서서 떠났답니다. 부설거사 가족은 업보로 태어난게 아니라 서로서로 공부를 도우려 나온것입니다. 결혼하고 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속가에 있으면서도 결심만 있다면, 공부만 여실히 할 수 있다면 출가 재가가 문제 안됩니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반인연을 간절히 염원한다면 이루어 질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정년퇴직해서 집에 오면 손자 엉덩이 두드리면서 공부해요.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옛날에 대중울력만 하면 바쁘다고 굉계를 대고 방에서 안나오는 스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잔꾀를 부리는 줄 알고 도반스님들이 달래도 안돼요. 그 스님이 입적한후에 다비하는데서 도반스님들이 "이노장, 지금도 바쁘냐?"고 하니 "바쁜 소식을 봐라"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나무더미에서 누런 금손이 불쑥 나왔다가는 녹야원에서 첫 법문을 들은 다섯비구는 전생에 호랑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한나라의 셋째 왕자였었는데 하루는 형들과 함께 뒷동산엘 갔었어요. 그런데 동굴에 있는 호랑이 새끼 다섯마리가 먹을게 없어 굶어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셋째왕자는 내몸 하나 희사해서 살려야겠다는 자비심이 생겨 형제들을 먼저 보낸후 동굴로 되돌아가서 살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장차 부처님이 될 분이라는 것을 짐작했는지 외면을 했어요. 그러자 셋째왕자는 돌조각으로 피를 낸다음 호랑이 입에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제사 야수의 본능이 살아났던지 먹더라는겁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초개같이 희생하는 일화가 많습니다. 제도하는자와 제도받는자 사이에도 이처럼 숙세인연이 쌓여야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을 보시한 것은 곧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겁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일이란 보통일이 아닙니다. 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 말을 잘 안듣는 사람도 잘듣게 되는 이치가 있는거예요.

나의 스승이셨던 지월스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목욕하러 들어가면 제 옷을 모두 빨아주셨습니다. 난 원래 절에서는 그렇게 하는줄 알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월스님 도반이 오셔서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크게 꾸짖은 적이 있어요. "야, 이놈아 스님의 옷을 네가 세탁해야지, 네가 스님이 세탁하신 옷을 입어? 이 고얀놈아!" 지월스님의 그 말없는 가르침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로서는 그이상의 법문이 없어요. 지월스님 기제일에는 상좌가 아닌 스님들도 많이 옵니다. 다들 지월스님 같은분이 한분만 더 계시면 좋겠다고 해요. 훌륭한 선지식은 공부를 앞당겨 줍니다.

어쨌든 계를 수지하고 선정을 닦으면 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세가지는 따로 순서가 있어서 차례차례 닦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닦아야합니다. 이 삼학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어 성불하세요.

## 음욕 억지로 참기보다 생각·행동을 건전하게

## "계로 스승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 당부

### "깨침은 간단히 열리지 않아요 의심을 품고 꾸준히 연마해야 견처를 체험할 수 있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이정도 실력이면 큰소리 칠만합니다.

수지왕사 일륜월(誰知王舍 一輪月)
만고광명 장불멸(萬古光明 長不滅)
가가, 타일(呵呵, 他日)에
구안자(具眼者)가 견지(見知)면
당발대소(當發大笑)일이라.

누가 왕의 집안에 한 등근달이 만고에 광명이 멸하지 않을줄 알겠는가? 하하, 후일에 안목있는자가 본다면 마땅히 크게 웃을 일이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견처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깨침은 간단히 열리는게 아닙니다. 과거생에부터 많이 닦아야 합니다. 연마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성도후

## 色도 法도 공한 것이 자연의 본래모습

## 물리학 법칙없는 법칙 '제법공상' 수긍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75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⑫

제법공상과 물리학

'색수상행식 역부여시'다음 반야심경은 '사리자 제법공상 불생불멸…'하고 어떻게 모든 것이 공(空)한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반야를 터득한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의 근원은 그저 공할 뿐이며 생겨나는 것같이 보이지만 생겨난 것이 없으며, 없어지는 것같이 보이더라도 없어진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물리학은 반야와는 상관없고 모든 것을 오관으로 보고 분별지로 판단하지만 제법공상에 수긍한다. 또한 불생불멸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이다.

지금까지 여러번 색과 공에 관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모두 물리적인 진공과 물질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성소멸에 관해 얘기했을 뿐 물리적인 법칙이 공한 모습에 관해 논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 이제 법에 관해 얘기하자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사실 공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제법공상은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물리학은 이 글자그대로의 뜻을 뒷바침하고 있다.

제법공상의 직접적인 뜻은 색즉시공과는 또다른 것이니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같이 보인다. 달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돌며, 지구도 같은 법칙에 의해 정해진 궤도를 따라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와 달뿐만 아니라 모든 별과 모든 물체가 움직일 때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빛도 한점에서 다른점으로 보내면 두점사이의 최단 거리를 따라 움직인다. 달이 지구를 떠나 여기저기 아무데로나 돌아다니다 돌아온다는 법도 없고 빛이 최단거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이리저리 꾸불꾸불 움직인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미시적 세계에서 볼 때는 빛이 최단거리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다. 빛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빛을 보내면 A와 B사이의 무한히 많은 모든 경로를 따라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움직인다. 아니 움직인다는 말도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 무한히 많은 경로중 어느 특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선거리를 따라 움직일 확률도 있고 빙둘러 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또다른 경로를 따라 움직일 확률도 있을 뿐이다. 모든 경로마다 빛이 지나 올 가능성이 있을 뿐 빛은 이중 어느 하나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가능한 모든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다. 빛입자 하나가 여러개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자가 하나의 경로를 따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해서 동시에 여러 경로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빛은 A에서 B까지 도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빛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가 그렇게 행동한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A라는 점을 출발한 빛이나 입자가 B라는 점에서 불쑥 나타났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따라 왔다는 가능성을 합쳐 놓으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인것처럼 보인다. 빛의 경우 직선거리를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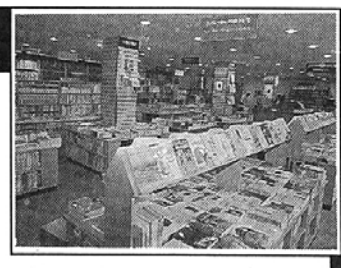
어느 특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데도 거시적으로 보면 일정한 법칙을 따라 정해진 경로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 자연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어떤 물리학자는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것만이 진정한 법칙이다"라고 말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이 말을 반야심경이 표현한 제법공상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인다고해서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법(法)마저 공한것이다. 제법공상은 분명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물리학자들이 자연을 기술하는 방법과 일치한다.

색(色)도 공하고 법(法)마저 공한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불을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 고은 불교대하소설




## 어떤 사연

떼배에서 풀어진 통나무 두개를 필사적으로 확보한 인담은 그것에 또하나의 목숨을 의지하였다. 남자 소석이 그에게 안긴 채 '으으…'라고 신음하는 것을 과도더미가 냅다 덮어씌웠다.

다시 그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머리칼과 얼굴이 바닷물에 씻겨질대로 씻겨질 수 있었다.

그녀로서는 두고 온 아버지가 광소 해가 질 무렵 내뱉은 몇마디 말들이 떠올아서 그 때문에 짠물 한 모금을 먹어버린 난감한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나는 곧 가야한다. 이제 너만 어디다 맡긴다면 이승에서 내가 할 일은 다하는 셈이다…나야 어서 네 에미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한다…."

"나는 네가 문둥이한테라도 시집가기를 바란다. 네 마음은 그런 문둥이까지도 반드시 낫게하여 빛나는 지아비로 만들터인즉…."

"나는 가야한다. 나도 급하거니와 네 에미도 나를 애타게 기다린단다…."

이런 말을 하는 늙은 아버지는 무지여느 때의 아버지가 아니어서 어딘지 혼백이라도 나가버린 빈 사람인양 헛되기 일쑤였다. 어머니를 말할 때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바람을 적시는 것도 어쩐지 혼백이 나가버린 인상이었다.

아버지가 8도의 산중을 포수로 떠도는 동안 그의 정처없는 세월이 흘러갔다. 너무 많은 멧돼지와 사슴 노루 그리고 몇마리의 곰과 한마리의 호랑이를 잡은 경력은 포수들의 세계에서는 제법 으시댈만한 자랑이었다.

그런 그가 청천강 위쪽 묘향산밑 주막에서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주막의 골방에 들어눕고 말았다. 그가 지닌 호랑이 가죽이나 곰쓸개 따위 그리고 사슴뿔 따위를 한가지씩 싸구려로 내주어야 우선 몇차례의 약과 죽을 대주는 주모의 마음을 표변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보현사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영변의 장교(將校)부인과 그의 외동딸이 먼 길을 앞두고 그들을 태우고 갈 나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장교가 보낸 나귀가 갈을 잘못 들었는지 어머니와 딸은 할 수 없이 납짝한 주막에 들어 우선 햇빛을 피하고 있었다. 거기서 딸의 밝은 귀에 어떤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주막은 주모도 집을 비웠고 주막에 들어올 손님도 없었다.

딸은 신음소리에 다가갔다. 주막 뒤란의 골방에 이르렀다. 문짝을 열었다. 비릿비릿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어두운 방안이 차츰 눈에 익었다. 딸은 그 방안에서 한 우람한 사내가 누워서 진땀을 흘리며 연방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지극히 맑은 의식 안에 이미 한 사내가 전국의 깊고 깊은 산중을 혈혈단신으로 떠도는 광경이 담겼다. 또한 그 사내 곁에 놓아둔 총포도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군인의 기상으로 살아오는데 따라 그런 사내에 대해서 담대하였다.

"일어나시오. 여기에 더 있다가는 병을 낫기는 커녕 다른 재난을 당하기 쉽겠어요. 어서 일어나시오."

하고 그녀는 누워있는 사내를 일으켜 앉았다. 진땀이 쑥 들어갔다. 눈두덩이 푹 꺼진 눈에서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다. 무릇 사람이란 음양이 서로 만나 하나의 몸이 되었을 때가 눈빛이 가장 빛나고 힘찬 법이다. 그래서 혼례를 마친 첫날밤의 신방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눈빛이 부딪치는 곳이기도 한 것인가.

아무튼 병든 포수의 그런 힘찬 눈빛 때문에 그를 일으켜 세운 백일기도의 맑은 경지에 있던 장교의 딸도 섬뜩할 정도였다.

그녀는 간밤 묘향산 밑의 한 처사가 꾸려나가는 객관(客館)에서의 꿈때문에도 그 사내를 다그쳐 세웠던 것인지 모른다.

꿈속이었다. 한 사내가 여러마리의 맹수, 호랑이와 곰 그리고 멧돼지들에 둘러싸여 잡아먹히려는 순간 그녀가 달려가 그 사내를 덮쳤다. 그랬더니 맹수들은 저마다 아가리 속의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슬슬 돌아가는 것이었다.

아무튼 딸이 부축해 나온 병든 사내는 그런 중에도 총포는 꼭 한손에 들고 있었다. 한눈에 포수인줄 알만하였다.

어머니는 난감하였다.

"웬 사람이라더냐?"

"저도 몰라요, 어머니."

"어쩔 셈이냐?"

"이 사람 여기다 두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마음이 놓일만한 곳에 옮겨 두겠습니다."

"으음… 기도끝에 하필 이런 인연이라더냐" 라고 어머니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딸의 일을 그대로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마디 참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녕 누구인지…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더구나 무슨 병인지 알아보지도 않은채…."

"병이야…짐승을 너무 많이 잡은 업장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포수입니다…행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아기씨는 이런 사람마저도 도우려는 보살인고…쯔쯔."

모녀에게는 한 사람이 보태어진 일행이 되었다. 빈 주막을 떠났다. 다행히 무거운 신음으로 누워있던 사내인데도 억지로 걸음을 걷게하여 어두운 골방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 뒤로 차츰 걸음걸이가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운에 허기(虛氣)가 든 양(陽)이 철저한 기도로 다져져 빛나는 음(陰)으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인지 몰랐다.

그런 다음 음식은 이정의 집에서 정성껏 광주리에 담아다가 차려내는 것이었다.

포수는 상투조차 풀어서 오랜만에 더운 물에 몸을 씻었다. 몸을 씻을 뿐에 걸려 움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토록 목간을 함만큼 살아난 것이 이상한 노릇이었다. 그는 줄곧 그를 구조해낸 남자에의 관심때문에 어느덧 병이 절반 이상 나아진 상태였다.

과연 그는 그녀의 숫된 기운을 받았던 것이다.

문 한짝을 사이에 두고 윗방에 포수가 있고 아래방에 모녀가 머물렀다. 두견새가 밤의 시간을 부지런히 울어댔다. 어떤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연으로서의 의지가 새삼 돋아나는 밤이었다.

> "어찌 우리 아가씨는 이런 사람마저 도우려는 보살인고…"
> 영문모를 간질병 고치려 기도했는데 근본없는 사내에게 몸을 바치니 어머니는 대책이 없었다

끝내 기다리던 나귀는 보이지 않았다. 한나절 길이 평평하게 걸어서 한 천수답(天水畓) 마을에 이르렀다. 마을 이정(里正)을 찾아갔다. 비록 댕기머리의 남자일망정 말소리가 영롱하고 힘찬 것이 상대방을 압도하였다.

"여기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일행 중에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어서…."

"어디 가시는 누구신지…."

"박천 군막의 장교 이길준장수의 식구입니다."

"그러시다면 어찌 하룻밤 머물지 못하시겠습니까. 누추한 곳이지만 이 마을에는 지난날 정배(定配)된 바 있던 한양 조참판의 거처였던 별당이 비었습니다."

이정은 세사람을 이정의 집 위쪽의 숲에 에워싸인 한 집으로 안내하였다. 우선 냉돌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 불을 뗐다. 늦은 여름이지만 몸 씻을 물을 푸짐하게 데워 놓기까지 하였다.

밖의 토방에서 밤공기를 실컷 쏘이다가 포수의 방문을 가만히 열었다. 그 방으로 들어갔다. 신음소리가 툭 멎었다.

남자가 들릴락말락 아주 작은 소리로 포수에게 속삭였다.

"이대로 가만히 계셔요…."

포수는 신음소리 따위를 낼 생각도 몽땅 없어진채 이 뜻밖의 행복에 당황과 용기를 뒤섞어 남자의 숨결로 살컷 얼굴이 더워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두사람은 온몸의 피가 뜨거운채 꼼짝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있었다.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그 마음에 몸이 따라가서 하나가 되려하고 있었다.

이윽고 누가 먼저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댔는지 분간할 수 없게 두 사람의 몸은 붙어져 버렸고 그것은 다시 칭칭 땜질로라도 감겨져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포수의 신음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잠자리야 새 이불과 요를 가져다가 깔고 덮었으나 잠이 바로 올 리가 없었다. 길을 걸어 온 수고가 도리어 지나친 피로이기 때문에 누가 업어가도 모르도록 깊이 잠들 나위가 없었다.

그러기는 포수의 방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영문도 모르게 끌려오다시피한 그로서는 정작 몸을 깨끗이 한 뒤 잠자리에 눕자 그동안 사라졌던 병세가 다시 찾아와 어느새 신음소리를 이따금 내기 시작하였다.

그런 신음소리를 자정이 넘어서 두견새 소리 사이로 엿듣고 있던 남자가 잠든 어머니 곁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는 그 이전의 병든 몸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아직 다다르지 못한 환희의 절정을 앞두고 거기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헌신적인 음악으로서의 무의식이었다.

정작 그런 포수에 대해서 남자는 이미 겉옷이 벗겨진 상태임에도 태연하게 사내의 힘을 도발할 따름이었다.

"으으"라고 마치 벙어리가 어떤 예외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녀가 첫 아픔을 참는 한마디의 신음소리를 냈을 때는 포수의 몸이 그녀의 몸안에 한없는 부족으로 쌓이는 만족을 위하여 들어간 뒤였다. 캄캄하고 무서웠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대로 빠져들어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이 놀라운 합치의 사건을 아랫방의 어머니가 잠든 척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녀로서는 묘향산 백일기도의 영험이 이렇게 험상궂은 일로 나타난 것 자체가 무서웠고 그 무서움에 조금도 항의할 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딸의 영문모를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인데 근본 없는 사내를 만나 그 사내한테 몸을 바치는 이 수습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로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남자는 포수를 일으켜서 새벽에 길을 나섰다. 이미 그녀에게는 어머니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마음씨 착한 계모여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생모가 떠난 뒤 사흘이 멀다하고 추취로 들어온 여자가 바로 이 생모 못지않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렇게해서 두사람의 억지 가시버시는 될 수 있는 한 박천에서 먼 곳을 향하였다. 그것이 황해도와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 서쪽 들녘에 이르는 그들의 세월이었다. 거기서 낳은 딸이 바로 인담과 함께 표류된 남자였던 것이다.



그림 · 조 항 슉

## 보현사서 백일기도 올린 낭자와 병든 포수가 낳은 딸이…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이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꾸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 어린이들 기다리는 '동쪽나라' 살려야

6월 12일자 12면에서 '월간 〈동쪽나라〉 5월호로 휴간'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동쪽나라〉가 발행 7년만에 잠정 휴간을 결정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휴간이유가 몇년에 걸쳐 누적된 적자폭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본인은 월간〈동쪽나라〉가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 전문잡지란 점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동쪽나라〉가 휴간을 하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첫째가 보살불교 즉 성인불교만을 추구하는 스님네들의 의식이다. 이로인해 부모님과 함께 절에오는 어린이들에게는 관심없고 오직 어른들과 함께해야만 사찰에서 원하는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다는 조급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의식들을 보다 더 일찍 무너뜨렸다면 지금과 같은 월간 〈동쪽나라〉휴간이란 기사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불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쯤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일은 없었지 않겠는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동쪽나라〉가 배달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조계종단이나 누군가 역량있고 의욕있는 불자가 인수하는 복간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엄정임·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삼풍참사 1년 교훈 안전의식 생명처럼

세간에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삼풍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사를 당한 이들의 가족들 역시 그 시간의 길이만큼 긴 고통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있을 테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아픔과 눈물이 고여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린 늘 아픔도, 기쁨도 너무 빨리 잊는 사람들로 변해왔다. 무엇이든 그때뿐인 것이다.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그때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상태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늘 이렇게 자조섞인 푸념에 그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삼풍참사로 인해 희생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위를 둘러보고 또다른 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생을 다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일 것이다.

〈김성경·서울 금천구 독산2동〉

## 법당 바로앞에 주차 사찰서 적극 통제를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모 사찰을 참배했다. 오랫만에 가족들과 함께 산사를 찾은지라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사찰입구에 도착해 합장을 하고 대웅전을 향했다. 그러나 사찰까지 가는 동안 여러번 고행아닌 고행을 감수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버젓히 주차장이 있는 데도 법당앞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느낀점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성스러운 부처님이 모셔진 사찰,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뒷꿈치를 들면서 조용조용 걷는데 불자라고 자칭하는 이들 대부분은 아무 거리낌없이 보란듯이 법당앞까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고급승용차란 점에 더욱 놀랐다.

특히 이들에 대한 사찰측의 대우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이 법당앞까지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사찰측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란 판단밖에 내릴 수 없었다. 분명 부처님께서는 빈부의 구별이 없고 누구나 평등하다고 설하셨는데 법당앞에 고급승용차 주차를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영남·서울 용산구 남영동〉

현대불교를 읽고

## 데생용 반가상 받고 학생들 민족얼 상기

불교종립학교인 미술실에 데생용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 마침내 6월17일 상단에 봉안되었다.

우리 학교 개교이래로 미술실에 데생 실기용으로 보살상을 모시는 불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어찌 생각하면, 이제까지의 타성들이 부끄럽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이참·사참으로 참회하는 순간도 가졌다.

이같이 거룩한 일을 매주 문서포교의 으뜸원리를 자랑하는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그 신력·법력·묘력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바라고 싶다. 그리고 크나큰 믿음을 보낸다.

어릴때 소꿉놀이하면서 모래성을 쌓는 일도, 미래를 향해 하나의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균여의 보현십원가 중의 예경제불가의 "마음의 붓으로/그려 놓은 부처님 앞에/절하는 이 몸이여/법계 끝까지 이르소서/티끌마다 부처님 절이며/절마다 모셔 놓은 법계에 가득하신 부처님/구세가 다하도록 절하리라"라는 노랫말이 생각난다.

날이 갈수록 몸은 한국인이로되, 의식구조는 서양인화에 대한 우려도 많아져 가는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래고주 미륵보살을 떠올리면서, 붓을 잡고 청정한 신어의업으로써 구상화시켜 간다면, 처처가 신선한 생명감이 넘치는 도량이 될 것이다.

〈경철·광주광역시 정광고 교감〉



**득자사전** 이런 차림으로야… 큰스님께 들은 이야기다. 어깨를 드러내고 노출이 심한 차림의 참배객은 절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목욕재계는 못할 지언정 법당참배의 기본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름 참배복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양평 용문사를 참배하며. 〈조경숙·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여름 수련대회를 앞두고

## 대자연속 참선일정 청소년 선도에 큰몫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수련대회(캠프)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요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안스럽기 그지없다. 새벽같이 학교로 출발하여 10시간 이상의 수업과 자유롭지 못한 야간 자율학습에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바람으로 마지막 남은 아이들의 시간마저 까다로운 영어와 컴퓨터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빠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막연한 소외감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소위 달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사고하는 환경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자유로운 삶 속에서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민이 탄생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련활동(캠프)을 꼽을 수 있겠다.

대자연 속에서 맘껏 소리도 질러 보고 뛰어 다니며 다른 방식의 또래 집단도 만나고 그 속에서 두터운 우정과 협동심도 키워 나가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부이자 참 깨달음의 길이 아닌가 싶다.

올해는 불교 청소년의 해이기 때문인지 예년보다 더 많은 불교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이 잡혀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수련회를 비롯해서 국악캠프, 문화캠프, 과학캠프 등 다양한 캠프도 있다 하니 꼭 참가해 보길 바란다. 좀 더 큰 사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성구·(사)청소년교화연합회 간사〉

보고만 있을수 없어요

## 조선말까지 불교성지 천진암에 대성당 착공

세계 10대 성당을 목표로 건립중이라는 천진암 대성당 착공식 보도를 접하고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껴야 했다.

천진암은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존재했던 대중스님이 3백여명에 이르렀던 거찰로 천주교도와 충신들의 은거처를 제공했던 사찰이었다고 한다.

특히 천주교도들이 천진암에서 집회를 가졌고 이승훈을 북경에 보내서 천주교를 이땅에 전파하는데 대중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도움을 주었던 곳이 천진암이었다. 문헌에 의하면 천주교도들을 은거해주다 수많은 스님들이 처참히 죽고 폐사의 아픔까지 겪었다고 한다.

이런 사찰이 소위 천주교 성역화라는 미명아래 불교적 양심으로 베풀어준 은덕을 배은망덕으로 갚은 천주교로 인해 법당터는 천주교 성인 5인의 묘지가 됐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역화작업의 눈에 티라며 앵자산 중턱의 영통사와 회령사도 신부의 모략과 '절내놓으라'는 천주교도들의 농성 등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물리력으로 비구니스님을 협박하여 폐사시켜 버렸다.

지금와서 무슨말을 한들 소용없다는 것도 안다. 외유내강인 불교종단 특성상 당연했던 결과였으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남이 가져가려는 우리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것을 갖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인력과 재력의 낭비가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불교가 달라졌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화합불교 주체성있는 불교가 선결과제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 혁·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지옥의 장 *
화를 불러들이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비난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향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모범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합장
문의전화:745-3005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치료및교육내용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50평,시설 일체 완비
■연락처:(02)245-0904
■비용:보증금 3000만원 시설 일체 1800만원
※운영 즉시 법호 가능합니다.

불교사업 동참하실 분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분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 분
■불교 단체 운영하실 분
※교육청 인가
만 대 교 학 대 학 원
등기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代)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사찰 양도 안내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법당 : 요사체 시설 일체 완비
●특징 : 천불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 9층탑, 16나한님, 종각, 미륵 부처님, 해수관음상. 모셔짐 정원수려
●금액 : 8억(절충가능함)
※연락처:064)32-1495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성남(범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작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응각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설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강원도 산사에서 수양하실분을 찾습니다.
■경치좋고 시설 편리한 사찰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찰일을 도우며 사실 건강한 분이나 노후를 보낼 부부도 환영합니다.
※농사도 지을수 있고 학생이나 고시공부 하는 분도 받습니다.
■문의전화:진곡사(0346-592-7315) / 강원도:(0346)461-7294

佛事 (불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재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 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및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편치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주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아간 (0342) 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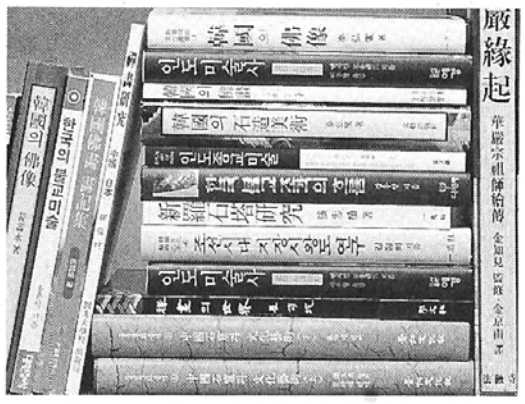
# 불교미술책 양 팽창 질 제자리

## 불화도록등 올 10여종 '서점에'
## 불교정신 녹인 개론서 태부족

"선종의 미술은 주객합일체(三客合一體)로서 미술이 곧 자내증(自內證) 그 자체이며 자내증이 곧 미술 그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기(禪機)에 무르녹은 회화는 제일로 모든 감각적인 것의 극한위에 우선 선다." 한국 미술사학의 비조인 고유섭선생(1905~1944)의 '불교미술에 대하여'란 글에 나오는 말이다.

1948년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미술서인 고유섭선생의 유고 〈한국 탑파(塔婆)의 연구〉(을유문화사)가 나온지 근50년. 최근들어 불교미술 연구서, 불화도록 등 불교미술 관련 도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올해 출간된 것만 해도 불교미술사를 다룬 〈한국불교미술사〉(김영주 · 솔) 〈인도미술사〉(벤자민 로울랜드 · 예경) 〈한국미술사 자료집성 4, 5권〉(진홍섭 · 일지사) 등과 불교미술 연구서로 〈중국석굴과 문화예술〉(온옥성 · 경인문화사) 〈지장시왕도 연구〉(김정희 · 일지사) 〈달마도의 세계〉 〈선화의 세계〉(최순택 · 학문사), 도록으로 〈한국의 불화〉(성보문화재연구원 · 불지사) 〈화엄연기〉(김경남역 · 법융사) 〈돈황〉(로드릭 위드필드 · 예경) 등 10여종 이상이다. 이밖에 일지사의 〈서역불교조각〉, 시공사의 〈고려시대의 불화〉도 7월, 9월에 각각 출간될 예정으로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불교미술서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최근 몇년간의 불교미술 출판 활성화로 현재까지 나온 관련도서는 80여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불상 탱화 석탑 사찰 등 분야별 전문서는 많지만 불교미술 전반을 다룬 개론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개론서는 황수영교수의 〈한국의 불교미술〉(역경원), 홍윤식교수의 〈한국의 불교미술〉(대원정사), 문명대교수의 〈불교미술개론〉(역경원), 디트리히 젝켈의 〈불교미술〉(열화당) 등에 불과하다. 둘째는 기법 · 양식적인 측면에 치우쳐 미학 · 역사 등 불교미술의 정신을 함께 다룬 연구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양미술의 형식론을 따르다 보니 우리 불교미술의 정신적인 면이 소홀해 지고, 이로인해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풍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우현 고유섭선생처럼 미학과 미술사를 균형있게 다룬 불교미술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불교미술서가 한차원 높은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 우리 체질에 맞는 연구서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 학술서 출판 보조금 20억원 예산편성
#### 문체부, 내년부터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7월1일)으로 인한 국내 출판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학술도서출판보조금을 새해 예산에 반영,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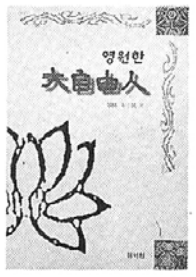
지난 19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도서출판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술도서출판보조금 제도를 신설, 약 2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내년도 문체부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학술도서를 발간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출판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또 공공도서관의 학술도서 구입과 배포범위를 늘리는 계획도 마련중이다.

### 영원한 대자유인 — 강정진 지음
## 수행불교 진단 나아갈 방향 제시

화제의 책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불교수행모임인 선우회(회장 김장생) · 청정회(회장 윤종국)의 지도법사인 강정진거사(62)가 13세부터 50여년간 수행정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의 정수를 명쾌하게 설명한 책인 〈영원한 대자유인〉(경서원)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8만대장경을 꿰뚫는 요지만으로 체계를 세워 영원한 대자유인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이 책은 중생과 부처를 명확히 정의하면서 수행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체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한국 선종사와 교단사, 아울러 남 · 북방 수행불교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처방안까지 제시해 이 땅의 불교가 가야할 바를 밝히고 있다.

〈경서원 1만원〉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아니었으면 불교의 명맥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이순구씨(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는 최근 발간된 '여성사'를 특집으로 다룬 역사학보 150집에서 논문 '조선초기 여성의 신앙생활'을 통해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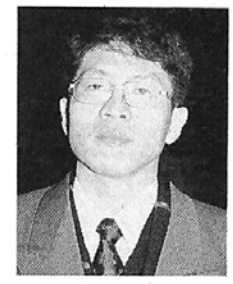
### "조선조 여인들 신앙 불교명맥 이었다"
#### 이순구씨 '역사학보' 기고

여성들이 의존했던 믿음의 내용과 사회적 지위 및 의식구조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즉 조선초기에 와서는 불교가 비록 통치이념으로는 퇴색됐지만 종교성은 꾸준히 유지되면서 일반민중 특히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여성들의 신앙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우〉

### 명사추천 불서 100선
## 종교란 무엇인가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때는 미국 유학시절이었던 1983~84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에서는 불교하면 당연 일본불교인지라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서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출중한 이론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미국에서 〈종교와 무(Religion and Nothingness)〉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고 번역은 브랙트(Bragt) 박사가 중심이 되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들었다. 이 책이 소개되자 나의 은사였던 리차드 디마르티노 교수는 불교에 관심있는 교수나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자고 제의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다.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 국제한국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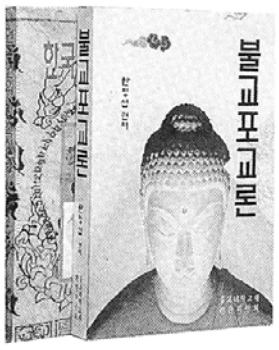
존경하는 은사님이 소개한 책이라 처음에는 하나의 성전(聖典)처럼 느껴졌다. 디마르티노 교수에 의하면 이 책의 저자인 니시타니 게이치는 동서양의 언어부터 철학까지 모두 섭렵했고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하이데거와도 동문수학한 이시대 최고의 철학자라는 것이다. 나는 사실 일본에 그런 훌륭한 철학자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다. 나를 포함한 한국의 불교인들은 일본불교 하면 '교학은 조금 있지만 신앙은 없다'라고 하면서 '인도부터 발달해 온 불교의 열매는 단연코 한국불교'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교의 종주국은 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

이런 일본불교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교, 그것도 선불교의 입장에 서서 서양철학과 종교와의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서 동서양 종교철학의 만남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니시타니가 중심이 된 교토(京都)학파이다. 교토학파는 불교의 입장에 서서 불교철학을 더 보편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이나 기독교와의 비교를 통해 불교를 재해석하면서 그 지평을 높이고 넓혀가고 있는 대단히 창조적인 학파이다. 교토학파의 학문적 결정체가 바로 이 책이다.

내용을 보면 불교의 무(無)나 공(空)의 입장에 서면서도 불교의 취약점이자 기독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와 시간에 대한 장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불교는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고 역사관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강한 기독교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불교의 공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도 불교의 공이나 무상(無常)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고 좋은가를 심도있게 비교하고 있다.

또한 종교에 대해서는 인간실존의 심연에 있는 절대허무를 극복하고 공적(空的)인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튼 교토학파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관한 한 세계의 메카처럼 되어 있다. 이점에서 서로 배타적이기만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불교는 배울 점이 많겠고, 이 책과 사상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동서양 종교철학의 만남 주선
## 宰사상 기독교와 비교 재해석




### 출판화제
## '불교포교론' '…민속신앙' 한정섭법사 2권 동시출간

한국불교교화원장 한정섭법사가 〈불교포교론〉 · 〈한국인의 민속신앙〉(불교대학 교재편찬위 刊)을 동시에 펴냈다.

〈불교포교론〉은 92년 스님들의 특별교육을 위해 〈불교포교 방법과 실제〉란 제목으로 출판, 불교통신대학 고등과 교재로 사용한 책을 정토불교대학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일선포교사들의 참고서가 되게 교정 증보한 포교 안내서. 포교사의 자격, 자질형성, 의무와 복덕, 포교방법 등 다양한 논제와 방식을 응용하고 역대 포교사들의 포교불사를 산 경험으로 살려 구도 전법의 의식을 일목요연하게 인식케 한다. 〈한국인의 민속신앙〉은 한국인의 놀이문화, 통과의례, 주술신앙, 부적, 귀신 등 갖가지 민속신앙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했다. 〈재〉

### 새로나온 책...











▲수행공덕 과보따라 천상가고 극락가네(묘련 저)=전남 장성 영취산 묘현사에 가면 30여년간 〈법화경〉을 공부해 온 노스님이 있다. 한겨울에도 양말을 신는 법이 없어 '맨발스님'으로 알려진 묘련스님은 근기가 낮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묘법연화경〉 공부가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설한다. 〈간경도감 5천원〉

▲풍수로 보는 한국사찰 1, 2(임학섭)=청산풍수지리연구원 임학섭원장이 전국 유명사찰 60사를 풍수적 관점으로 답사한 기록. 자연의 생기가 충만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곳을 명당(明堂)이라 하는데, 이런 풍수론은 생활의 지혜로 우리 민족의 삶에 녹아 있다. 〈동학사 각권1만3천원〉

▲판차탄트라(관디트 비쉬누샤르마 저)='다섯 토막의 지혜'란 뜻을 담고 있는 〈판차탄트라〉는 기원전 2백년경에 성립됐으며 그후 오랜 세월동안 집시들에 의해 유럽에 전파돼, 지금까지 50여개 국에 번역된 우화집. 인간을 이해하는 법, 진실한 벗을 찾는 법, 기지와 지혜로 난관을 이기는 법 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태일 7천원〉

▲오대산(박용수 글 · 손재식 사진)=신라 자장율사에 의해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산으로 개산된 불교성지로서의 오대산의 절경과 산세, 자연자원 등을 소개했다. 상원사와 월정사, 5대 암자 등 오대산의 유적과 문화재 등이 소개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 제183권.〈대원사 3천5백원〉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조 피셔 저 · 손민규 역)=지혜와 자비의 계발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이룬 더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지향하기에 환생의 과정은 더욱 필수적이다. 영국 언론인 조 피셔가 환생의 체험 사례를 모은 논픽션. 〈태일 6천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 · 편자 | 출판사 |
|---|---|---|---|
| 1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 법 정 | 샘 터 |
| 2 | 그 마음을 바쳐라 | 김 재 웅 | 용 화 |
| 3 | 기도 | 일 타 | 효 림 |
| 4 | 전생여행 | 김 영 우 | 정신세계사 |
| 5 | 능엄경 주해 | 운 허 | 동국역경원 |
| 6 |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 | 정 승 석 | 대원정사 |
| 7 |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권 영 한 | 전원문화사 |
| 8 | 부처님의 유언 | 공 파 | 태 일 |
| 9 | 달을 듣는 강물 | 김 진 태 | 해 냄 |
| 10 | 과학과 불교 | 김 용 정 | 석 림 |

구입문의:(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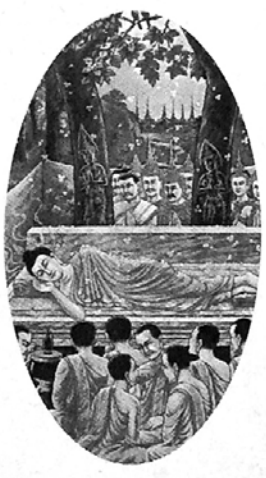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① ②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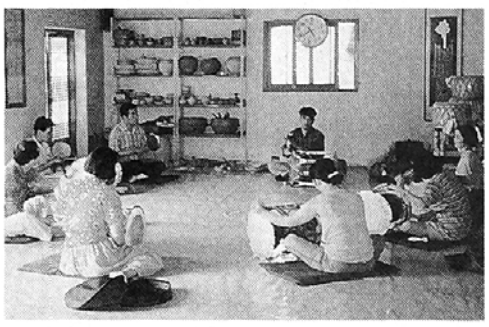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 문체부, 문화재 지정절차 개선

### 위원회 심의기구로… 국보·보물 과학적 분석

문화체육부는 문화재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문화재지정절차를 대폭 개선하는등 문화재관리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로 했다. 또한 1천여점에 이르는 국보 보물등 주요 동산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성분 분석작업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실시하며 그 결과를 데이타베이스화 해 문화재지정의 근거로 활용한다.

김영수문체부장관은 지난 26일 귀함별황자총통 조작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문기구로 되어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법적지위를 심의기구로 상승시켜 독자성을 높이고, 각 분과위원장과 관련분야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국보지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전문가 3인이상이 참여하는 사전검토제와 본위원회 상정 30일전에 국보지정사실을 알리는 지정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천불교문화원에서 불자들이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 지역불심 문화공간으로

### 영천 용화사문화원

### 다도·도자기등 강좌에 발길이어

경북 영천시 야사동 용화사에 개설된 불교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며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더구나 지역 최초로 독립된 불교문화원 건물을 9월에 신축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있다.

전통문화계승과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용화사 주지 지봉스님은 지난해 1월 요사채를 개조해 영천불교문화원을 개원, 지금까지 불교교리 및 다도 도자기공예 영천토속민요배우기 사물놀이와 유적답사 등의 강좌를 열어왔다. 지금까지 배출해낸 문화수강생은 4백여명. 특히 지난해 고성 오광대놀이와 최무선장군 추모헌다제 등을 봉행, 전통문화재현에 주력해 화제를 모았다. 전통찻집이 전혀 없던 영천에 지난 한해만도 5개의 전통찻집이 생겨날 정도로 차(茶)붐이 이는데도 일조를 했다.

오는 9월 기공하는 문화원은 대지 220평에 연건평 120평의 4층짜리 건물로, 완공되면 더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윤〉

## 불교미술대전 심사·운영등 '오픈'

### 투명성문제 불식 공모전 권위 '보강'
### 전통·현대 불교미술 분리 매년 실시
### 심사위원 대폭늘여…실기작가도 포함

교계 유일의 불교미술인의 등용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운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970년 창설된 불미전은 유수의 불교미술인을 탄생시키는 요람구실을 해왔으며 선서화의 대중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들고, 아시안게임·올림픽 등 세계인의 잔치가 열릴때마다 우리나라 전통미술을 보여주는 대표展 역할을 해오는 등 연륜을 쌓아왔다. 그러나 공모전형식으로 운영되는 불미전은 일부 운영과 심사방법 수상작선정 등에 투명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았고 따라서 명실상부하게 권위있는 공모전이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왔다.

주관부서인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성관)는 우선 불교회관이라는 열악한 전시장소를 벗어나 전시에 적절한 전용 전시관을 대여해 내년 16회 불미전부터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장소도 좁고 조명도 빈약한 총무원청사 불교회관에서의 전시아말로 불미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임시방편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현재 격년제로 전통과 현대부문을 함께 개최하는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통과 현대불교미술로 분리해 매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두부문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의 창작과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 그리고 그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심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수정된다. 재기용이 방지되고 실기작가들도 다수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고문 자문위원을 두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도 현재의 12명보다 많은 16명정도로 늘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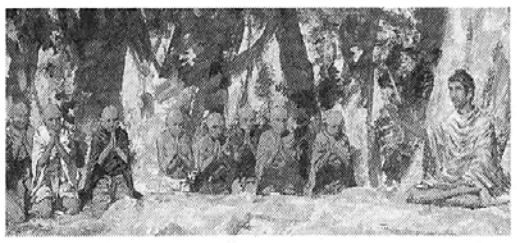
또한 재능있는 작가의 참여를 높이기위해 최고상인 대상금을 현행 5백만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대상과 최우수상의 작품들을 주관처가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사부는 태고·천태종등 타종단들을 참여시키고 일반 기업체와 언론·방송사의 협찬을 얻는등 불미전이 조계종만이 아닌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한 전체 불교계의 열린 마당이 되도록 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

성관스님은 "국민소득 1만불시대 도래와 더불어 불자들의 문화에 대한 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불미전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실을 다져가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 "그림 2천4백여장으로 부처님일대기 본다"

### 김산호씨 회화집 '대불전' 3권 펴내



◇김산호씨의 오랜 원력으로 나온 회화집 〈대불전〉의 한 장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의 중요 장면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지고 이 그림 2천4백여컷으로 구성된 그림책 〈대불전(大佛傳)〉이 나온다. 전 3권으로 엮어지는 〈대불전〉은 부처님 탄생당시의 시대적 배경부터 사문유관, 출가, 성불, 처음굴린 법륜, 기원정사, 사카족의 출가, 아자타사르투왕, 스라바스티, 불교종단의 완성, 입멸등 불교의 탄생과 전법의 명장면들을 세심한 고증에 따라 전형적인 서양화기법으로 그려져 해설이 들어간 그림책으로 이것을 수록한 16개의 비디오테이프가 곁들여진다. 그림과 글은 김산호씨. 지난 93년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를 복원한 최초의 회화 극본 〈대쥬신제국사(大朝鮮帝國史)〉를 펴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서양화가이다.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수준높으면서 이해가 쉬운 포교용으로 그린 회화책 발간의 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김씨는 객관적 고증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룸비니등 부처님 6대성지를 답사해 현장 스케치했고 많은 전문서적을 참조 연구했다고 한다. 복장이나 건물등은 주로 초기에 완성된 석굴이나 인도고대화를 연구 분석 재구성했으며 정확을 기하기 위해 국내 권위있는 불교학자들의 감수를 거쳤다.

김산호씨는 "그동안 나온 불교성전들 대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한문투의 난해한 글로 한글과 컴퓨터에 익숙한 청소년등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해 왔다"면서 "불교를 마치 전설이나 신화처럼 여기는 젊은이들이나 불교입문자들에게 불교에 들어가는 첫단계로 이책이 보고 읽혀졌으면 한다"고 말한다. 〈대불전〉은 차후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도 번역, 각국에 소개될 예정이며 김산호씨는 원판 회화들을 가지고 장차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다. 〈숙〉

## 불심시심 〈56〉

### 정토를 구하라

| | |
|---|---|
| 吾生六十又三年 (오생육십우삼년) | 내 나이 육십에 또 세 해 동안 |
| 徒費光陰雪滿顚 (도비광음설만전) | 한갓 세월만 허비하고 흰 눈만 이마에 가득 |
| 揮塵講時虛掉舌 (휘진강시허도설) | 채찍 휘두른 강론 헛되이 혀 움직였고 |
| 貫華吟處亦妨禪 (관화음처역방선) | 화엄을 꾀듯 읊었지만 선에는 방해되다 |
| 綠蘿燃月誰爲主 (록라연월수위주) | 파릇한 고운 풍경 누가 임자일까 |
| 碧峰雲泉我自專 (벽장운천아자전) | 푸른 뫼, 구름 샘 나만의 전유물 |
| 從此箇中心靜住 (종차개중심정주) | 이제부터 여기에 마음 고요히 멈추어 |
| 西歸淨業極精妍 (서귀정업극정연) | 서방으로 가 깨끗한 업 정성껏 닦으리 |

위 시는 백암(栢庵)선사의 정토찬(淨土讚)의 일부이나, 이 정토찬은 정토보서(淨土寶書)를 편집하고서 그것을 시운으로 다시 읊은 듯하니, 그렇다면 게송의 전형적 작품이라 하겠다. 정토보서는 대사가 임자도에 표류하던 중국의 선박에서 많은 불서를 수습했었는데 이 정토찬의 시는 그것을 다시 가려 편집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불경들의 편집이 50세 때의 일이고 10여년 뒤 63세에 이 정토찬을 지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정토보서와 정토찬은 표리의 관계를 가지니, 정토보서는 정토를 찾았던 여러 사실을 경전에서 수집하였고, 이것을 정토찬에서 100수의 연작시로 읊은 것이다. 그러니 이 정토찬이야말로 불교시가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깊은 수작이라 하겠다. 단일 소재로서 시와 문이 함께 이러한 거작으로 남은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위 시는 그 중에서 29번 째의 시이다. 정토보서의 서문에서 "정토를 구하는 것은 염불보다 나은 것이 없다" 했듯이 63세를 지나고 보니 그동안 강경이나 참선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허다히 주마의 채찍을 휘두르며 강론을 하였지만 그것은 헛된 혀의 놀림에 불과했고, 화엄을 꿰뚫듯이 읊조리기도 하였지만 그 또한 참선에는 방해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파릇파릇 아른거리는 저 고운 달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인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이 누구나 주인될 수 있듯 서방정토의 주인도 바로 나인 것이다. 마치 저 푸른 뫼 구름에 가린 샘물을 마음대로 내가 간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속에 내 마음을 고요히 간직하여 이 깨끗한 업을 닦으리라는 것이 60을 넘긴 대선사의 새삼스러운 바탐이기도 하다.

이 정토찬은 100수로 된 장편의 연작시이다. 게송시가 흔히 일반적인 시적 구속력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나, 이 정토찬은 한시의 외형적 조건도 성실하게 갖추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작자인 백암은 당시의 시문학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는듯 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인터뷰 귀국전 준비하는 유근상씨

### 禪등 동양사상 심취 '명상시리즈' 작업



섬세한 터치와 부드러운 색감으로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등 동양적 정서를 표출한 '명상' 시리즈로 호평을 받고 있는 유근상씨(33)가 이탈리아에서 최근 귀국, 귀국展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의 선사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간 기억도 더듬고 여행중에 만나는 풍경, 내면을 스치는 바람 등이 모두 나에게는 화두가 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시가 피렌체미술협회 창립 150주년 기념전에 초대작가로 선정 지난 4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단테생가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가져 현지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유씨는 지난 89년 이탈리아 문화부가 유럽공동체에서 종교·문화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사람에게 수여하는 '시벨리우스2000' 중 평론대상인 '에밀리오 그레코'상 및 유럽미술대전 외국인 예술상인 '우고아 타르디'상을 수상, 이탈리아에서 가장 촉망받는 작가의 한사람으로 자리를 굳혔다. 명문 피렌체국립아카데미아에서 수학한 그는 여덟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오는 9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주최로 열게되는 대규모 귀국전에 이어 내년 5월에는 이탈리아의 마리노마리니미술관에서의 초대전에서도 명상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유근상씨는 "선(禪)사상등 동양의 깊이있는 정신세계를 계속 탐구하는 창작과 더불어 후학지도에도 나서겠다"고 말한다. 〈경〉

## "한국불교 현대사고 필요하다"

### 서구문명 선별수용등 시대흐름 적응해야



덴마크 소렌슨 교수가 말하는 '21세기 한국불교'

현재 한국불교는 변화를 필요로 하며, 불교의 목적과 현실 생활과의 이중성을 올바로 이해해 종교의 참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서양학자의 주장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불교등 동아시아 종교를 연구해온 헨릭 소렌슨 교수(덴마크 코펜하겐大)는 지난 6월2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불교'라는 발표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종교행위라도 특정한 사회의 물리적, 사상적 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는 서구문화가 곳곳에 침투해 있어 종교가 독점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런 관점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수행체계와 신행행태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정치적 변화와 대중매체, 근대화 및 서구문명이 한국불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으나 한국불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이 겪어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과 관련시켜 볼 때 한국의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전근대적인 세계관과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자각적 인식과 종교를 세속사회와 떨어진 가치 개념으로서가 아닌 문화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btn캠페인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뵈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시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02)3270-3300 Fax: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96 애틀랜타 올림픽 출전 D-23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영광의 순간을 향한 올림픽불자선수들의 간절한 발원이 6월26일 저녁 태릉선수촌 한마음법당 출전결의법회에서 퍼져나왔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일 아침 불암산 태릉선수촌에 쏟아부운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공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발원하옵니다." 유도의 금메달 유망주 전기영선수가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회장 정용균) 선수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자 금강석같은 굳은 결의가 선수들의 마음에서 빛을 발하는 듯 합장한 손들이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오는 7월19일부터 8월4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제26회 올림픽. 세계 각국 선수 1만여명이 출전, 저마다 갈고닦은 기량을 쏟아내게 된다. 한국선수도 3백80여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이들중 70여명이 부처님 앞에서 메달획득의 결의를 다지고자 한마음 법당에 모였다.

"자기자신과의 싸움인 사격은 그 어떤 운동보다도 정신집중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참선과 명상을 통한 훈련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92년 바르셀로나 금메달리스트, 세계 사격의 왕자 이은철선수의 말이다.

이번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 리스트에 오른 다수의 선수들이 한마음 법당에서 신심을 함께 쌓은 불자선수들이란 점은 더욱 이채롭다.

"법당을 찾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충전이 된다"는 한국여자유도의 자존심 조민선과 정성숙을 비롯 레슬링의 신예 유망주 심권호, 여자 농구팀의 귀염둥이 전주원, 셔틀콕의 마술사 배드민턴 박성우, 과녁의 명중사 남자 양궁의 김보람, 남자 배구의 임도헌등 불자선수들이 꽉 짜여진 하루 훈련일정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자주 한마음법당의 부처님을 찾았다.

바르셀로나 금메달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예상 금메달 0순위로 꼽히는 역도 66kg급의 전병관선수도 자타가 공인하는 불자선수. 여기에 체조의 여홍철선수도 공중에서 두바퀴 반을 도는 쿠에르보라는 신기술구사로 한국 체조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불자선수다.

이날 법회에서 한마음불자회 고문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마음밭에 모든 종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땀으로 뿌린 씨앗을 올림픽에서 알찬 열매로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불퇴전의 신심과 원력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법문을 설했다.

모두 함께 모여 "화이팅!"을 외치는 선수들의 우렁찬 목소리에서 금메달의 낭보가 벌써 가까이에 와 있는 듯했다.

# "땀으로 뿌린 씨앗 금메달 결실을"

## 26일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애틀랜타 출전결의법회

## 70여 불자태극전사 올림픽 필승다짐 '합장'

이은자 기자



◇애틀랜타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의 불자선수들이 필승을 다지는 법회를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 방송가 소식

### 성우·법산스님 진행



◇성우스님



◇법산스님

불교TV와 BBS의 경전관련 프로그램이 새 진행자로 단장했다.

불교TV '재미있는 경전공부'(PD 양홍식)는 지난 2일부터 석성우 스님이 진행을 맡았으며 BBS '참선이야기'(PD 이선희)도 지난 1일부터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이 벽암록을 새롭게 이야기로 엮어가고 있다.

### 12일 btn 이사회

불교TV 제13차 정기이사회가 오는 12일 11시 신라호텔 23층 에뚜라르룸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회에는 경과보고 및 업무현황보고, 상반기 결산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 대구BBS 후원법회

불교대구방송 설립후원을 위한 대법회가 5일 오후 7시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다. 불교대구방송설립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불교대구방송 설립추진경과보고와 함께 설립후원회 회장 추대도 함께 할 예정. 불교대구방송은 현재 대구시 대명동 진각회관 8층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연주소 설비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후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교방송 조해형사장, 대구경북지역 본말사 주지스님, 문희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등이 참석한다.

### btn 숭산스님 해외포교

불교TV는 해외포교 30년 제2탄 'Sun Rising East'를 11일 12시30분부터 방송한다. 숭산스님이 최초의 외국인 제자인 무량 무상 무등스님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식 장면과 스님의 불교입문시절과 수행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 볼만한 영화 비욘드 랭군



◇ '비욘드 랭군'의 한 장면.

80년대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시위와 진압이란 적대적 관계를 통해 부처님의 기르침인 이타(利他)를 배우고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 '비욘드 랭군'이 오는 7월6일 호암아트홀에서 개봉된다.

'비욘드 랭군'은 1988년 네윈 군사정권에 맞섰던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그해 9월의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혔던 미얀마의 정치적 격동기에 관광객 로라 보어만이 겪은 내면의 변화, '이타'를 섬세하고 스케일이 큰 영상으로 풀어낸 수작이다.

### 이타주의로 이룬 미얀마 민주화과정

패트리샤 아퀘트가 분한 미국 여의사 로라는 얼마전 아들과 남편이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얀마 관광길에 나선 로라는 랭군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시위대와 군대가 대치한 현장을 목격하고 더 큰 충격에 휩싸이며 정신·육체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라는 관광안내원 아웅코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계기로 미얀마의 비극을 바라보는 이방인에서 벗어나 이타행을 몸소 실천하며 고통스런 자아를 잊은 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여성으로 변화해 간다.

또한 서정성 깃든 영상을 통해 미얀마의 고요와 평온을 보여주고 있다.

## btn·BBS 어린이 여름캠프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어린이포교를 위한 여름캠프를 각각 실시한다.

불교방송은 오는 16일부터 17일 1박2일간 사찰유치원생을 대상으로한 BBS 아기코끼리 캠프를 청평 풍립후렌드리 캠프장에서 개최한다. (02)705-5301

불교TV도 오는 23일~25일 2박3일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한 제3회 연꽃어린이여름캠프를 청평 풍립후렌드리캠프장에서 열 예정. (02)738-7860

특히 연꽃어린이 여름캠프는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불교TV가 주최가 되어 준비한다.

## 해군사관생도·장교 165명 수계

### 삼광사·해군호국사 "군불교 중흥 앞장" 서약

천태종 부산삼광사(주지 춘광)와 해군사관학교 해군 호국사(법사 정인호)는 지난 6월19일 사관생도와 초급장교가족 호국사신도 삼광사신도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0기 입관축하법회와 1백65명의 사관후보생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거향찬을 시작으로 봉행된 이날 수계식에서 계사인 춘광스님은 연비를 하고 계첩을 수여한뒤 "부처님의 진리에 몸담아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호국실천이 곧 수행이다"며 "불법을 널리 실천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는 선봉장이 돼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계자를 대표하여 김창준소위는 "화랑정신을 근간으로 한 불교정신으로 군불교중흥에 앞장서겠다"고 서약했다.

수계식에 이어 삼광사 신도회 주최로 열린 다과회에서는 해군호국사 신도회가 계사인 춘광스님에게 대형 거북선을 선물하고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찬불가공연 등 우의를 돈독히 하는 불자 한마당이 펼쳐졌다.

삼광사는 12년전부터 호국사와 매년 수계법회를 봉행하여 2천여명의 해군초급장교들에게 수계하는 성과를 거둬 군불교의 고급화에 앞장서고 있다.

## "승부떠난 승·속 한마음잔치"

### 해인사스님 對 연예인올스타팀 친선축구대회

### 월드컵 성공기원…日NHK·홍콩 스타TV 취재

### 2천여관중 응원 해인사팀 8:6 힘겨운 승리

"해인 화이팅! 월드컵 코리아!"

지난 6월23일 해인사총림 대운동장에서 열린 해인사축구단 대 연예인올스타팀간의 친선경기는 시작전부터 열띤 응원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경기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축구열기 고조를 위해 마련된 것. 특히 해인사로서는 2002년이 산문 개산 천2백주년이 되는 의미깊은 해임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최초의 스님축구단과의 경기라는 이색소재 탓인지 일본의 NHK와 홍콩의 스타TV도 취재에 열을 올렸다.

해인축구단은 약30여년전 주지 영암스님의 원력아래 빈발하던 산불을 막기위한 체력단련의 방편으로 조직된 팀. 해인팀에는 감독겸 주장 현조스님을 비롯 수진 각안 범진 등 가야산의 청정이슬로 담금질된 11인의 철각들이 포진했다. 이에 맞서는 연예인팀에는 주장 김흥국씨를 비롯 탤런트 이병철 선우재덕 박준규 이승빈 가수 현당 정광태 이청 박일서(도시의 아이들) 등이 포진했다. 연예인팀은 막강한 해인팀에 맞서고 흥보의 극적효과도 노릴겸 외인구단 4명을 긴급 배치했다. 경기 3일전에 전국 가대표 최순호, 김종부, 박경훈, 제정구씨가 섭외된 것.

휴일을 맞아 대가람서 열린 이색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2천여 관중들의 열띤 응원속에 역전을 거듭하던 경기는 8대6이라는 골풍작을 기록하며 해인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경기가 끝난후 현조스님은 "심신단련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으며 김흥국씨는 "승부를 떠나서 모두 한마음으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 의미깊은 경기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경기시작전 연예인팀은 방장 혜암스님의 친견 및 월드컵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법회를 가졌으며 여기서 축구사랑모임대표 김흥국씨 등 2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해인사축구단 대 연예인올스타팀이 해인사 축구장에서 월드컵유치기념 친선경기를 벌였다.

목탁소리

## 군포교 '빈수레'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포교일선에서는 군대를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하고, 군대내에서의 군승을 곧잘 그물에 비유한다. 이는 군포교에 있어 군승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러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군포교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조계종에서는 지난해 국방부를 상대로 군승의 증원과 군승후보요원 대상의 대폭확대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군포교의 발판구축은 물론 군불교 활성화의 일대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군승후보요원을 제대로 양성, 관리하지 못해 법사 미파견부대가 속출하는가 하면, 군승지원자가 95년 18명에 비해 96년에는 13명으로 현격히 줄어 향후 5년까지 80여명을 증원키로 한 근승후보요원의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군승의 80여명 증원은 불교계가 국방부에 종교간 형평성 및 군대내 종교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얻어낸 성과물인 점에서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번 일로 종단은 빈수레가 요란한 모양이 되어버렸고, 위신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생 및 출신자, 동국대출신 학사학위 취득 스님에게만 한정돼 있는 군승지원자격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군승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지원이 없는한 군대내 불교계 위상정립과 군승지원자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군불교진흥회 및 군포교 일선에 있는 군승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군승지원자를 확보하자면 '현대판 비승비속'의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군승에 대한 위상정립과 그에 따른 대우 및 현실적인 군부대 예산책정등 보장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증원이 되었으니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충원계획과 관리대책을 세워 포교의 황금어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생활 속의 불교 ⑦⑨

# 삶은 그대의 원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콩을 원한다면 콩씨를 심어야 하고 팥을 거두고자 한다면 팥씨를 심어야 한다.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콩을 수확하려 하면서 팥씨를 뿌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도 뿌린 그대로 스스로 거두고, 행한 그대로 스스로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법칙 중에도 예외가 없는 법칙-철칙이다.

**인**류의 스승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칙을 삶의 지표로 삼도록 간곡히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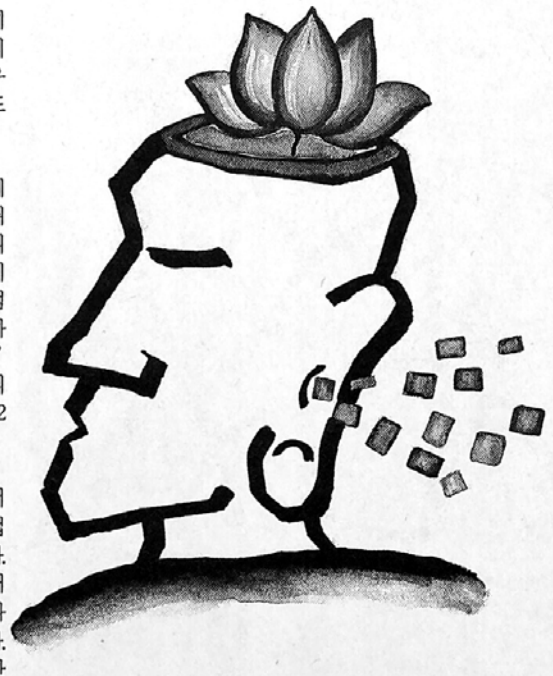
'그대가 그 무엇을 원하거든 씨를 뿌려라.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 인과의 법칙엔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다고 한다. 고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해서 행한 그대로, 뿌린 그대로 우리 앞에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가 오고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이 찾아 온다는 것이다. 내가 행하고 내가 먹는 도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런가. 나는 분명히 성취와 기쁨을 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과는 좌절과 슬픔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던가? 그러니 그 법칙에도 예외가 있는 게 아닌가?

**'내** 손길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달라'던 마이더스 왕은 그 소원이 성취됨으로 해서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 그의 세 끼 음식까지도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더스의 경우에도 법칙은 엄연히 살아 있었다. '손길 닿는 것마다…' 하고 원한 것이 씨앗이고 '황금으로 변한 것'이 결과라면 다시 황금이 새로운 씨앗이 되고 죽음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인과의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삶**은 상대적이다. 혼자서 뿌리고 혼자서 거두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인과의 법칙은 얽히고 설킨 고차원의 방정식과 같다. 혹은 촘촘히 짜여진 그물 같기도 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씨앗과 결과간의 상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법칙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한 것이다.



**내**가 한 끼의 식사를 위해, 혹은 취미·레저라는 명목으로 살생을 한다고 하자. 나는 분명 배고픔을 해결했고 여가를 즐겼으니 행한 대로 원한 대로 뿌리고 거두었다. 그러나 인과의 고리는 거기서 종결된 게 아니다. 나의 즐거움이 상대의 아픔·괴로움으로 이어졌으니 그 아픔과 괴로움의 과보도 내가 받아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예외 없는 법칙의 생동감이다.

**살**생뿐 아니라 탐욕·어리석음·성냄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욕망 충족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일으킨 파장은 하나의 새로운 씨앗이 되어 어느 때 어떤 형태로든 내게 결과로 되돌아 온다.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결과도 복잡다양하게 찾아 온다. 더구나 우리 스스로 뿌리는 씨앗은 또 얼마나 복잡다양하던가. 찰나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고, 끊임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것들이 낱낱이 씨앗이 되어 결과를 몰고 오게 되어 있으니 뿌리고 거두는 일은 자연스레 상상키 어려울 만큼 얽히고 설키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에 예외가 있는 듯이 여겨지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

**탐**욕·성냄·어리석음 따위는 비유하건데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 탐욕의 과보가 내 몸을 불 태우고 성냄·어리석음의 과보가 내게 큰 고통을 몰고 온다는 경책이다.

따라서 기쁨의 씨앗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싶거든 바람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듯, 삼독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슬픔·괴로움·어둠을 몰아내고 밝음·기쁨을 맞아 들이는 일이 된다. 기쁨의 씨앗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 된다.

자신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하거든 불법을 실천하라. 삶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협찬: 백승우·김희주

## 현불뉴스

### 경불련에 '삼풍감사패'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공동회장 설조 안동일) 자비의집이 지난 29일 삼풍참사 1주기 추모위원회로부터 삼풍참사때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단체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

### 자민련불자회 총회

자유민주연합 불자회는 지난 6월26일 중앙당사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정상구 부총재를 선출했다. 이어 자민련불자회는 6·25 46주기 호국영령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용채 자민련상임고문 한영수부총재 박구익 이인구 정상구 주양자 권수창 박신원 지대섭의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 '역사바로알기' 캠프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색캠프가 열린다.

나눔의집(원장 혜진)은 8월 3,4일과 10,11일 2차에 걸쳐 1박2일의 일정으로 '역사 바로알기-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여름수련캠프'를 나눔의집 수련관에서 개최한다.

###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부여지회(지회장 정민)는 6월22일 불교문화원 2층 법당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권태씨(청보리불교학생회 지도간사)가 우수지도자상을 김기석씨의 7명이 각각 청교련회장상과 군수상을 받았다.

### 칠곡 다부동 위령재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용사 위령대제가 6월24일 칠곡군 다부동 6·25전적비 기념관에서 봉불련회장 혜율스님을 비롯 무심정사 청광스님, 칠곡군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자원봉사 특별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인천 부루나포교원(원장 선일)부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오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체국 일손돕기, 을란포스터 제거, 사랑의 편지쓰기, 수화배우기 등 청소년자원봉사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모악산 송신탑 이전요구

## 전북 불교·시민단체 산정상 방송·통신시설 환경 훼손

전북지역의 금산사 경실련 전북지부 등 40여개 불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최근 지역의 상징인 모악산을 살리기 위해 정상의 KBS송신탑을 옮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모악산 정상의 KBS송신소를 철거하여 원형을 되찾고 민족정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현재 모악산 정상에는 KBS MBC송신소 등 방송시설과 한국통신 이통통신등 통신시설 경찰 항만 국가보안기관등 9개 기관이 거대한 건물로 입주해 있고 철책시설로 인해 정상이 훼손된 상태다.

이들 시설들은 금산사 땅인 모악산 정상을 20년전인 77년 4월 19일 독재정권시절 무상임대라는 최악의 계약으로 3백평을 KBS가 임대했으며 또 그 옆의 한국통신등 통신시설의 땅은 85년 6월 정부에서 징발보상금조로 공탁금 1만원에 매수해버린 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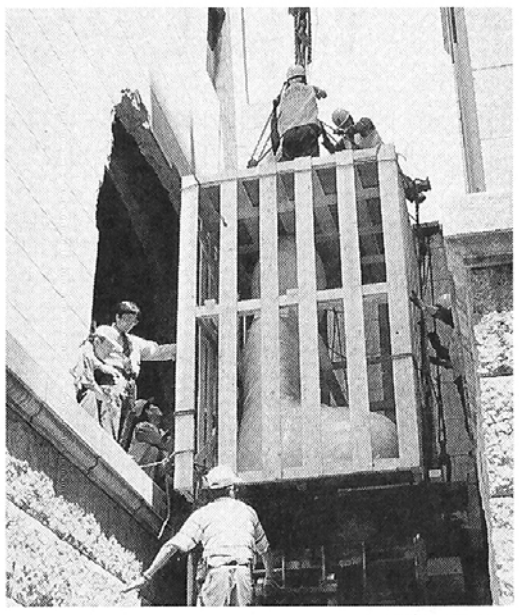
모악산 정상의 시설들은 원래 KBS 송신소 부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을 위반한데다 4월18일자로 KBS와 금산사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산사가 KBS송신탑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불교 사회 시민단체들도 간담회를 열어 모악산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철거 및 진안 만덕산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KBS측은 이전 설비의 어려움과 1백여곳의 새로운 무인중계소가 설치돼야 하는 등 부대시설비용이 높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로 환경적인 자연색으로 도색과 나무심기등 조경공사로 산림을 회복하고 모악산 청소등의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금산사와 모악산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모악산 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전북대 이문호교수(정보통신공학과)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위주의 지역발전이 있어야 한다"며 "모악산 KBS 송신소를 옮겨 자연풍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이전유물 1호' 철조여래상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유물중 최대-최종량급인 '춘궁리 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332호)이 지난 6월26일 경복궁내 신축중인 임시 국립중앙박물관(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이전유물 1호'로 기록됐다. 높이 2.81m 무게 6.2t의 이 철불은 이전을 위해 헐어낸 박물관 2층 불상전시실 동쪽벽을 통해 나무상자에 보호된 채 옮겨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 해인사골프장 정부탄원 결의

### 총림등 5개대책위 '고법허용' 긴급회의

〈속보〉서울고등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판결과 관련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조계종대책위원회(위원장 선용), 해인사총림 대책위원회(위원장 지관 해인사주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학) 등 5개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해인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판결이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자연공원법개정안(7월1일부터 시행령발효) 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현수막부착 △증단차원의 반대운동 참여촉구 △중앙관계부처에 탄원서 제출 △전국환경 및 사회단체의 공동대책 촉구 △주민의지 결집 △골프장부지 상시감시단 가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기로 결의했다.

## 경주시 새청사부지 황성공원결정 '반발'

경주경실련, 불교연합회, 불교청년회 등 30여단체로 구성된 '경주시청사부지 철회운동범시민연합'은 6월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시청사 이전계획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경주시청사 부지로 확정된 황성공원에는 신라원성왕때 김현이 호랑이를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호원사터가 남아있다.

## 임원진·행사등 결정

### 3국불교대회 준비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위원회(위원장 지하·종단협 부회장)는 6월27일 종단협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월하스님(조계종 종정)을 명예회장 대회장에 월주스님 등으로 하는 3국불교우호대회 임원단을 구성했다.

준비위는 또한 대회기간중 9월11일 오후9시부터 동국대운동장에서 불교문화대제전과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 김포학사 이전추진위 구성

### 승가대이사회

중앙승가대학은 6월21일 학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포 금정사 일대를 학사이전부지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성부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김포부지를 확정, 오는 9월 공사를 착공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6월13일 운영협의회에서 추천한 방지하스님을 학장으로 승인하고,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 '김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학사이전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념스님(상원사 주지)이 감사로 선임됐다. 〈관련기사 4면〉

## 복구비 약속이행 촉구

### 조계사, 현대건설에

조계사는 지난 6월26일 현대건설이 사실상 복구비지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곧 대응방법을 모색, 적극 대처키로 했다.

현대건설은 심현영 대표이사 명의의 회신을 통해 △한국일보 신축공사로 인해 조계사에 피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인기관의 조사를 거쳐 그 인과성을 규명해야 하며 △이에따라 복구비도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계사 총무 선광스님은 "사실상 복구비 지급거부 또는 액수를 흥정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제와서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를 인정하면 당연히 복구해야 하는 것이 대기업에 걸맞는 처사"라며 복구비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구독신청: 737-0691**

# 진신사리 이운의식 '서울도심서'

## 조계종 감은사지석탑사리등 문화재관리국서 인수

### 11일 종로·을지로

부처님진신사리를 이운하는 의식이 서울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최근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하고 있는 감은사지와 나원리 석탑 부처님' 진신사리를 인계받아오는 7월11일 이운법회를 종단 차원으로 봉행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를위해 지난 6월26일 부처님 사리 이운 및 봉안위원회(위원장 월주)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봉안위에 따르면 부처님사리 이운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법회를 갖고 이어 대한문-을지로-보신각-조계사에 이르는 이운행진을 펼친다는 것. 취타대를 선두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1백여명이 번을 들고 뒤에 원로스님들이 증명법사로 따른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40여명의 스님들이 2대의 연에 나누어 이운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운되는 성보는 지난 5월 감은사지 동탑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54과 사리병 뚜껑 발침기와 나원리 5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15과 금불상이다. 이들 성보는 7월31일까지 20일간 조계사에 전시되며 사리이외의 유물은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반환된다.

봉안위 집행위원장 원우스님(총무원 재무부장)은 "전시이후 사리는 사리병을 제작하여 발굴장소에 봉안한다"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감은사 서탑유물도 함께 이운할 수 있도록 교섭중이다"고 밝혔다.

## 대행스님 뉴욕법회 '성황'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뉴욕초청 대법회 및 불교음악회가 지난 6월22일 퀸스컬리지 콘서트홀에서 현지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스님들과 원불교 기독교 종교지도자 및 한국인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지원장 혜봉) 주최로 열려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4년여만에 마련된 자리라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어 6월23일 뉴욕지원에서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4백명의 합동수계식이 있었다. 한편 대행스님은 6월28일 귀국했다.

## 조계종 121회 종회

### 분담금납부법등 5개법안 통과

### 승려 재적본사 이적금지…연말까지 유예
### 관람료 30% 총무원·사찰 공동관리키로
### 비구니스님참정권 성원미달 결정 유보

조계종 제121회 임시중앙종회가 총무원이 상정한 종법제·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6월22일 폐회됐다.

종무보고 및 각종위원회 활동보고에 이어 진행된 종법 제·개정안 심의에서 종회의원들은 승려법(개정) 관람료관리법(제정) 분담금납부에 관한법(개정) 특별분담사찰지정법(개정) 교육법(개정) 등 5개법안을 심의 통과하고 산중총회법등 3개법안을 다음 종회로 이월했다.

○…개정된 '승려법'의 주요골자는 비구(니) 및 사미(니)의 재적본사 이적을 금지시키고 다만 사승이 퇴속 멸빈으로 인해 분한을 상실했을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해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종단 소속 승려의 경우 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단에서 사미계 및 비구계를 수지토록 해 승적취적을 가능하게 했다.

○…7월1일부터 관람료 자율화가 실시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관람료관리법'은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총무원과 사찰이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관람료분담금 12%, 교육특별분담금 5%를 납부토록 했다. 관람료액의 책정 및 조정,관리를 위해 13인이상 15인으로 관람료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람권은 총무원 재무부가 발행한다.

○…'분담금 납부에 관한법'에서는 분담금을 중앙분담금 관람료분담금 교구분담금 특별분담금 직영분담금등 5개로 세분하고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종회 마지막날 '산중총회법' 심의에 들어간 종회의원들은 비구니의 산중총회구성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종광스님은 "비구니계를 수지한지 20년이 경과해야 산중총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구니의 선거권 자격을 비구와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스님들이 '비구니의 참정권을 전면 반대'하자 장윤스님이 "비구와 비구니의 선거권자격을 같이 하기보다는 비구니의 경우 계를 수지한지 10년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하는등 논란이 계속됐다. 비구니의 참정권논란이 저녁 10시까지 계속되었으나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한채 종회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지난 120회 종회에 이어 또다시 성원미달로 폐회가 되고 말았다.

○…한편 종회의원들은 22일 '한·약분쟁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한의학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종회의 결의에 뒤이어 불교약사회 회원 20여명이 총무원을 방문, 중앙종회에 드리는 글과 항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종회의 결의는 한약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종회의 사과를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21회 임시종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비롯 10여개의 안건처리를 위해 7월 중순경 임시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 믿고 맡기는 믿음

믿고 맡기고 관해야 합니다. 그밖에 다른 군더더기는 필요없습니다. 주인공이 일체를 다한다고 믿어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천석같이 맡겨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하려고 하면 군더더기가 됩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집집마다 「불자의 집」,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명판을 붙입시다

◆7도 칼라로 제작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떳떳한 불자, 긍지있는 불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극락정토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것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불자의 집」 명판 붙이기 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한 이 운동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크기 : 6cm×7.5cm




■크기 : 3.5cm×10.5cm

※ 차량 부착시는 「불자의 집」 글씨 대신 「우리는 불자」가 들어갑니다.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차량에 부착해도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4. 차량용(유리후면부착)으로 좋습니다

**보급방법** 사찰, 단체에 보급합니다.

**크 기** 3.5cm×10.5cm, 6cm×7.5cm

**보 급 가** 1개당 1,000원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

# 訃 告

世界佛敎法王 一鵬 京保 大宗師 世緣已盡 丙子年 6月 25日(陰 5月 10日)午前 11時 40分 於 世界佛敎 法王廳 法王室 入寂 玆以 訃告

■永 訣 日 時 : 佛紀 2540年 7月 1日 午前 10時
■永 訣 場 所 : 東國大學校 大運動場
■茶 毘 日 時 : 佛紀 2540年 7月 1日 午後 7時
■茶 毘 場 所 : 慶南 宜寧 一鵬寺 茶毘場

世界佛敎法王廳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西菴 合掌

## 一鵬 京保 大宗師 世界佛敎法王廳 葬儀委員會

한국사무총장 : 김광태 법사
네팔대표 : 수달산
블란서대표 : 치치후엔비대승정
부탄대표 : 그나틴징
아쌈대표 : 마하구루대승정
오스트랄리아대표 : 티치북휴대승정
일본대표 : 나가노 에이젠
태국대표 : 케마팔리대승정
중국대표 : 명부대법상
몽고대표 : 담마잡
캄보디아 대표 : 텝웡
필리핀대표 : 스위김대법사
스리랑카 대표 : 비파시
방글라데시 : 수타난다대승정
미얀마대표 : 그나시와대승정
말레시아 : 담마난다 대승정
소련(독립국가연합)대표 : 캄보라마
인도대표 : 담마비리오
영국대표 : 바지라그나나대승정
미국대표 : 길벗대승정
베트남 : 민차우대승정
홍콩대표 : 각광대법사

**증 명** : 월 하(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찬다난다(스리랑카 승왕, 공동법왕)

고 문 : 월산 혜암 관응 비룡 숭산 원담 녹원 성수 지유 능가 광덕 청하 지관 월주 월탄 탄성 벽암 응담 도천 지종 운경 도원 일타 법전 수산 도견 송담 진제 동고 도성 덕암 보성 법홍 仁德 나까노 에이젠 비파시 담마비리오 수달산 명부 케마팔리 수타난다 바지라그나나 치치후엔비 그나시와 민차우 길벗 그나틴징 담마잡 담마난다 마하구루 텝웡 캄보라마 각광 티치북휴 스위김(무순)

자문위원 : 서돈각 조 순 정재각 황수영 조해형 송석구 김민홍 김용정 이기영 원의범 정태혁 오형근 최형우 김갑주 강경식 강부자 강선영 강희찬 곽정출 권해옥 김광수 김기재 목정배 김기배 김동권 김동근 김복동 김상구 김영일 김용환 김윤환 김윤환 김정수 김진영 김찬우 노인도 박구일 박규식 박근호 박우병 박준규 배명국 한정섭 송두호 송영진 신경식 신재기 유수호 이건영 임복진 정동호 정재문 정재철 정태영 정필근 조영장 조용직 주양자 채영석 최돈웅 하순봉 허경만 허재홍 황락주 황윤기 이홍구 김태호 김호일 김명윤 권익현 박헌기 서석재 김형오 박종웅 이상현 전용원 함종한 허대범 한이헌 정형근 김무성 이응선 배종무 조성준 김근태 한영애 이동선 김성곤 추미애 권수창 구천서 박구일 황규선 황성균 이춘기 이윤식 박완일 문정수 정홍진 이정규 이배영 이원범 일붕삼장대학원학생회 대한불교호국법사단 국제불교법사단 일붕문학상위원회 일붕법왕장학회(무순)

**장의위원장:서암**
**장의부위원장:경우**

장의위원 : 설정 무진장 암도 혜총 지하 정락 도후 현해 혜광 청우 법장 무공 정휴 법타 설조 성법 철형 성오 목산 법조 도영 지선 종열 현고 상원 중원 혜산 운경 태응 벽파 정관 홍교 성파 덕명 원성 보광 자우 법산 일면 시현 청우 현관 보성 혜초 도용 운덕 각혜 홍파 구암 혜안 혜붕 묵정 영명 현성 밀운 법홍 동광 인수 재산 무현 일화 계한 인왕 도암 운파 해암 윤보 우당 희수 권홍 대산 학암 용화 마한 깜포라마 이블킹스키 담마난다 藤觜智晃 아리야완사 비수 다난타 마하데로 바지라그나나 타치후엔비 게마팔리 담바자브깜포라마(무순)

호 상 : 석주
봉행위원장 : 정각
봉행부위원장 : 도철
대 변 인 : 혜성 혜문
명예집행위원장 : 위플라싸다(스리랑카)
집행본부장 : 동성
간 사 : 진철문 최선종
기획분과특별위원장 : 박동기
국제관계특별위원장 : 김광태
영남지역특별위원장 : 주도화
집 전 : 세민 원명
도 감 : 법우 최창배
총 무 : 법철 황인국
동 원 : 명중 김소부
재 무 : 효림 신회정
경 호 : 정철 이존영
홍 보 : 서병열 김영재
섭 외 : 이재복 장원각
병 법 : 정법일 최주암
지 빈 : 김민철 이선경
문중대표 : 덕암
종도대표 : 붕해 무찰
문도대표 : 정관
산중대표 : 혜운
은 제 자 : 연종 정덕 정당 도배 도진 도활 법우 도만 동광 정봉 운효 법만 월성 자명 해명 대성 탄형 효담 청공 도응 법용 정관 영주 법운 법진 월담 월인 석담 도원
손 제 자 : 혜문 태허 무용 경호 혜진 법천 완호 진성 혜성 동성
증손제자 : 상호 상열 진우 대산 규암 무위
법 제 자 : 법은 법운 용암 원각 대운 의천 병연 대우 법열 기택 용남 팔영 일암 무정 석용 기준 청송 법은 완경 혜심 법청 도안 원명 용진 법근 수원 성오 효봉 도우 법은 성재 현각 도심 영룡 고광 도연 보명 하담 정안 가산 이정문 법현 김노 대현 일안 순성 보현 승인 현광 도남선 이춘하 정금조 월단 해심 세안 지관 혜진 운송 범우 대성 청호 벽봉 영공 현광 해월 대률 상묵 형광 도활 도해 종호 강설 법륜 석철 용화 성법 만선 능봉 성혜 화룡 성식 우담 범해 팔봉 김훈 종옥 광일 자신 백운 형관 순락 남은 동암 현광 법일 기태 화담 창교 삼중 월산 청봉 무웅 천공 김한성 최종천 이지혜 고인덕 서수억 해심 이성호 양선 도명 김훈열 조중하 장혜철 이옥천 이배영 배맹자 도종묵 윤득이 학봉 복헌 유옥자 용주 법광 용주 벽철 성탁 동성 의륜 혜암 교덕 공심 해원 심월 대봉 덕산 혜안 명안 위불 해월 선시 금봉 길목 용담 묘심 만공 최혜숙 김영숙 오학수 최덕수 이염선 허순애 안승록 박차경 최혜도 유석근 전덕혜 송금득 배상환 한완희 이인규 서남수 최재규 설운선 김성해 정운봉 양세진 이우옥 권연암 성태규 한수모 최광영 송삼복 송정옥 고정자 이정자 김용신 이종근 이혜정 김미영 김춘옥 서유엽 김수임 정영기 김수동 채재준 최영자 김성옥 박태임 김창락 이렬호 배연지 김행환 김정자 정인자 최승부 혜은 월광 허봉정 이순홍 고성규 송구현 송영수 이영완 한영호 최성기 허상구 배강식 하태조 김용복 김희철 산봉 허성현 윤종만 김해근 조정길 조증조 한상배 김홍재 송춘희 김활선 명국환 남강수 송해 우월희 임창만 김원섭 김하곤 문형진 신영일 배영호 김도환 김명락 하봉수 백종석 이용각 이봉빈 김태돈 신재도 전남원 강진환 김혜숭 이정오 정창석 김기석 김보학 주기재 최정수 이병도 송장규 남덕음 오금주 황광자 김명룡 손인준 김기수 김남도 김영배 장삼준 이영태 이영재 권순덕 강희정 심황섭 노진환 김두한 류재풍 박임상 백재준 박태임 손영도 송정순 안풍야 연형수 오석환 임규덕 주성민 한준섭 허경무 이영봉 연양자 김순임 이기용 엄온자 이상은 함종리 서정무 이원재 임상현 김동식 김완식 김태곤 노현태 배태균 송주희 이산봉 이옥선 이우석 이현규 임부희 윤허공 오용만 장용선 한양수 홍종익 이영애 박용기 조호철 이기태 최홍수 이화영 서성모 임수길 이대선 이호성 유영웅 김덕수 송수양 박해강 김영철 이건재 성용암 윤수임 우종태 황현숙 이재용 이재화 김기옥 구석조 김문섭 마기철 백성현 서화영 안민호 유우선 이기섭 임정기 임명숙 전성자 정정업 홍운기 이공천 김태식 류장현 박사열 박성복 신동숙 심진섭 윤영복 이규천 이동탁 이혜숙 전광훈 정귀채 조성철 정화자 조남규 최금자 김순이 편일지 한상범 한유순 강대원 김경근 신광열 양준호 양창옥 최용림 허인범 김성진 김진철 정성태 최은식 강산규 곽중선 김옥녀 박점엽 신옥순 안정웅 윤재원 이대연 이병훈 이종찬 천두현 이순희 랑정희 최송식 박우진 이재성 원유찬 허종천 백호성 원종성(무순)

유 발 문 도 : 이지혜외 6,000명(개인별생략)

### 世界佛敎法王廳 葬儀委員會 執行本部

대표전화 02)396-0544 / 집행본부 02)396-0541
홍 보 실 02)396-0543 / 팩 스 02)396-4693
프레스센타 02)396-4693 / 5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세계불교법왕청

### 嶺 南 地 域 特 別 委 員 會

대표전화 0555)72-7777 / 팩 스 0555)72-9990, 2376
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천리 일붕사

# 一鵬 京保 大宗師 世界佛敎 法王廳葬 葬儀委員會